

# 해방기 부산지역 음악단체의 활동과 음악극 창작

남영희\* · 이순욱\*\*

## | 목 차 |

- I. 들머리
- II. 음악단체의 조직과 활동
- III. 음악매체의 발간
- IV. 노래운동과 음악극·한국오페라 창작 활동
- V. 마무리

## | 국문초록 |

이 글은 서양음악을 중심으로 해방기 부산음악사의 실상과 의미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당시 부산지역에서 발간된 신문잡지 매체, 교우회지, 협회 기관지, 음악교재, 공연팸플릿 등의 일차문헌을 통해 음악단체의 조직과 활동, 음악매체의 발간, 노래운동과 음악극·한국오페라 창작활동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해방기 부산음악사를 근대계몽기부터 축적해 온 부산의 문화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음악사회의 성장 동력을 구축한 시기로 새롭게 규정할 수 있었다. 해방기의 특징적인 현상인 좌우대립 양상은 지역 음악사회에서 뚜렷이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부산 음악인들은 다양한 단체를 결성하여 순수한 음악 활동을 추구하거나

\* 제1 저자,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 [eunice@pusan.ac.kr](mailto:eunice@pusan.ac.kr)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enfb@pusan.ac.kr](mailto:enfb@pusan.ac.kr)

교육, 음악회를 통한 사회적 기부 등의 사회 참여활동에 더 적극적이었다. 260명의 회원과 통영지부를 두었던 경남음악협회는 『음악주보』 발행, 학생콩쿠르 및 음악회 개최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특히 1946년 2월부터 발간한 『음악주보』는 우리나라 음악 관련 매체 발간의 역사상 선구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음악단체의 결성과 활동도 주목할 만했다. 부산음악가협회는 전문 연주자를 중심으로 순수 음악활동을 추구하였으며, 노래하자회는 새롭고 좋은 노래를 다함께 부르자는 취지의 모임으로 문화계 전반과 대중을 아우름으로써 음악 창작과 향유 기반을 폭넓게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해방기 부산음악을 특징짓는 다른 현상은 음악극과 한국오페라 제작이다. 각 학교에서 활발히 개최된 음악극은 민족주의적·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단순한 교내 행사가 아니라 학부형과 지역민을 아우르는 주요 문화 행사였다. 음악극 발달은 <피리와 칼>, <호반의 집> 등의 한국오페라 제작으로 이어졌다. 음악극과 오페라는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문학 등이 결합한 종합예술 형태이므로 부산지역의 다양한 장르의 예술적 역량을 결집하고 발전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부산음악사에서 해방기는 ‘맹아기’가 아니라 이후 부산지역 음악사회를 풍부하게 전개해 나갈 발전 동력을 구축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주제어: 해방기, 부산, 매체, 경남음악협회, 음악주보, 음악극

## I. 들머리

두루 알다시피 해방기는 거리의 시대이자 정치의 시대였다.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과제를 두고 이념 갈등과 충돌, 이합집산이 거듭되었던 그야말로 혼란의 시대이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 그리고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의미 때문에 이 시기는 새롭게 다가야 할 지점이 많다. 그런 만큼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폭넓은 성과를 축적해 왔다. 그런데도 지역 단위의 해방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소홀한 편이다. 그 까닭은 우선 민족국가 전설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동향을

담고 있는 일차문헌의 부족에 말미암은 바 크다. 또 지나치게 분과학문 영역에 매몰되어 파편화된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종합적인 시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예술 분야에서도 그 맥락은 유사하다. 이제껏 부산지역 예술, 그러니까 문학, 음악, 미술, 무용에 대한 연구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문학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sup>1)</sup>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분야는 여전히 다가서야 할 측면이 많다. 당시 예술 활동이 정치 지형의 변화나 각종 사회단체 활동과 일정한 관련 속에서 전개되었다고 보면, 사회문화사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회운동사<sup>2)</sup>와도 적극적으로 연관하지 못한 실정이다. 지역 문화예술사 연구는 독자적인 지역성을 고찰하는 의미 외에도 지금껏 국가예술사에 포섭되지 않았거나 배제된 활동을 보여줌으로써 국가예술사 서술에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산음악사 연구는 각종 매체와 공공기관 기록물을 토대로 근대계몽기부터 해방, 한국전쟁과 전후 시기를 개관하는 몇몇 연구 성과가 도출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여기에 지역 원로음악가의 증언과 구술 기록, 공연팸플릿이나 악보 등의 음악사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연구

1) 이순욱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이순욱, 『광복기 부산 지역 문학사회의 형성과 창작 기반』, 『석당논총』 50, 2011, 97~128쪽; 『광복기 경남·부산 시인들의 문단 재편 욕망과 해방 1주년 기념시집 『날개』』, 『비평문학』 43, 2012, 189~226쪽; 『시인 염주용의 매체 활동과 『문예신문(文藝新聞)』』, 『석당논총』 52, 2012, 177~219쪽; 『광복기 부산 지역 동인지 『소예군상(小藝群像)』』, 『근대서지』 5, 소명출판, 2012, 400~464쪽; 『광복기 요산 김정환의 문학 활동 연구(1)-문단 활동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47, 2013, 225~260쪽; 『광복기 요산 김정환의 문학 활동 연구(2)-시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9, 2013, 87~121쪽; 『‘혈탄(血彈)’으로서의 글쓰기와 문학적 실천: 광복기 요산 김정환의 미발굴 단편소설 『길벗』』, 『근대서지』 13, 2016, 320~352쪽; 『광복기 부산 지역 한글 운동과 『한얼』』, 『우리문학연구』 53, 2017, 409~433쪽.

2) 신중대, 『해방 직후 부산·경남지방의 변혁운동』, 『한국 근현대 지역운동사 I』, 여강출판사, 1993, 189~278쪽. 박철규, 『미군정기 부산지역의 대중운동』, 『한국 근현대 지역운동사 I』, 여강출판사, 1993, 279~403쪽.

가 깊이를 더했다.<sup>3)</sup> 이는 부산음악사 서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 하겠다. 그러나 부정확한 정보의 생산과 재생산, 구술증언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 원로음악인을 비롯한 명망 있는 지역 음악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부재 또는 기피 현상은 일정한 한계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일차문헌, 즉 매체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공개 자료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연구 환경의 한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부산음악사에서 해방기를 구분하고 호명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그러나 대체로 ‘부산음악의 형성기 또는 태동기’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sup>4)</sup>

3) 대표적인 논의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제갈삼, 『초창기 부산음악사』, 민족음악학회, 2004. 정영진, 『일제강점기 부산의 음악』, 『향도부산』 15, 1998, 349~400쪽. 류혜운, 『부산음악사 1946~1965』,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김선중, 『부산음악사 1966~1980』,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이현재, 『부산음악사 1981~1990』,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고은진, 『부산음악사 1991~1998』,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조선우, 『부산현대음악사』, 『향도부산』 14, 1997, 64~104쪽. 조선우·이기정·김원명, 『부산음악사 서술을 위한 시론』, 『음악과 민족』 19, 2000. 김창욱, 『광복~한국전쟁기의 부산음악계-부산지역 일간지를 중심으로-』, 『향도부산』 16, 2000. 제갈삼, 『한국전쟁기 부산음악의 실상-음악인·음악단체·연주회장·감상실 등을 중심으로-』, 『음악학』 8, 2001. 김창욱, 『한국전쟁기 부산음악의 사회사』, 『음악학』 8, 2001. 정영진, 『일제 강점기 부산음악사 시론』, 『음악학』 8, 2001. 김윤선 외 여럿, 『작고 부산음악인 연구 1』, 『음악과 민족』 27, 2004. 주은경, 『부산교향악운동의 선구자, 오태균』, 『음악과 민족』 28, 2004, 127~145쪽. 김창욱, 『부산음악연구의 현황과 과제』, 『음악과 민족』 34, 2007. 백재진, 『부산 실내악과 관현악의 밑거름이 되신 김진문 선생님』, 『예술부산』 2011년 1/2월호. 박근수, 『부산 서양음악 30년사 II: IV. 제3기 (1974~現在)-새로운 의욕과 도약의 시대-』, 『음악과 민족』 2, 1991, 248~263쪽. 박근수, 『부산서양음악 30년사 I-사회학적 입장에서-』, 『음악과 민족』 창간호 1991, 202~219쪽. 이들 논의에서 매체 자료를 제외하고 기초로 삼은 자료는 다음과 같다. 방부원, 『해방에서 5·16까지의 부산음악계』, 『부산 원로음악가 연주회』 팸플릿, 1985. 6. 16. 유신, 『해방기 이십년의 부산음악』, 『개항구십년』, 태화출판사, 1966. 박형태, 『음악세계의 뿌리와 맥』, 『산여울』 7, 1986, 35~41쪽.

4) 가령, 제갈삼은 1980년대까지를 ‘초창기’라는 용어로 묶고 시기를 ‘광복 이전’, ‘광복 후 20년’, ‘초창기의 끝 무렵’ 세 시기로 구분한다. 조선우 외 여럿의 논의는 ‘일제강점기’, 1945년부터 65년까지 ‘혼란기-해방공간, 동란기, 태동기’, 1966년부터 1989년까지 ‘발전기’, ‘20세기’로 구분하며, 김창욱은 1945년부터 1950년까지를 ‘광복부터 분단기’로, 류혜운은 1946년부터 1950년 전시(戰時)의 음악중심지, 1951년부터 1961년을 부산음악문화의 준비기, 1962년부터 1965년을 부산음악문화의 도약기로 구분하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정치 경제상의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회, 문화면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우리 부산은 6·25때 전국에서 많은 피난민이 몰려들어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 시기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되었다. 위의 시기를 비교해보면, **1945년 광복 이래 6·25까지 제1기의 부산문화예술계는 일본 식민지 문화의 잔재 위에 우리의 민족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기초 작업과 정치 작업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었던 시기였다.** 제2기의 부산문화예술계는 서울과 지방과의 문화예술인들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부산에 이주해 온 문화예술인들은 각기 학교와 문화기관 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조심스러운 그룹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1963년부터 현재까지의 제3기는 우리 부산문화예술의 창조를 위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시기는 경제부흥에 따르는 사회문화의 발전에 힘입어 조직적이면서 규모가 큰 예술행사가 베풀어지고 다듬어져서 부산문화를 건설하는 시기가 되었다.<sup>5)</sup>(진하계-필자)

인용문에서는 부산음악사를 1945년 광복부터 1950년까지를 ‘제1기’, 한국전쟁기 피란예술계의 형성부터 1963년 직할시 승격을 앞둔 시기까지를 ‘제2기’, 1963년부터 1983년 현재까지를 ‘3기’로 구분하고 있다. 해방기를 “일본 식민지 문화의 잔재 위에 우리의 민족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기초 작업과 정치 작업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었던 시기”로 규정한다. 다른 연구에서도 이 시기를 “과거 실기교습 위주의 음악 활동에서 벗어나는 시기”, “각종 공연을 비

---

고 있다. 제갈삼, 『초창기 부산음악사』, 세종출판사, 2004. 조선우·이기정·김원명, 앞의 논문, 2000, 71~121쪽. 김창욱, 『광복~한국전쟁기의 부산음악계-부산지역 일간지를 중심으로-』, 『항도부산』 16, 2000, 278~346쪽. 류혜운, 『부산음악사(1946~1965)』, 『음악과 민족』 16, 1998, 7~28쪽.

5) 『제12장 제1편 문화예술』, 『직할시이십년』, 부산직할시, 1984. 반면, 1991년 발간한 『부산시사』 제4권에서는 ‘혼돈 속에서 모색된 부산 음악’으로 기술하고 있다(부산시 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제4권』, 1991).

로써 현대적 의미에서의 음악비평 분야가 서서히 싹트는 시기”로 규정하며 ‘서양음악의 맹아기’로 본다. 요컨대 해방기를 해방 이전의 시기 또는 한국전쟁기로 수렴하려는 경향과 부산지역의 특수성 보다는 기독교 전파나 전쟁과 같은 역사적 맥락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이해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부산은 근대계몽기부터 축적해 온 음악적 자산과 문화 경험이 고스란히 유지된 지역이다. 이를 바탕으로 음악계에서도 음악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음악 활동을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해방기 부산음악의 특성을 재발견하기 위해서는 실증 자료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부산음악사에서 해방기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제껏 공개되지 않은 다양한 신문잡지 매체, 음악교본, 협회 기관지, 정부 간행물, 공연팸플릿, 음악교과서, 악보 들의 실증 자료<sup>6)</sup>를 확보하여 해방기 부산음악계의 실상에 한층 더 섬세하게 접근하고자 한다. 국악을 제외한 서양음악 분야에 한정하며, 음악단체의 조직과 활동, 음악매체의 발간, 노래운동과 음악극·한국오페라<sup>7)</sup> 제작 활동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sup>8)</sup>

## II. 음악단체의 조직과 활동

- 
- 6) 이 글에서는 신문매체(『매일신보』, 『민주중보』, 『부산신문』, 『산업신문』, 『자유민보』, 『부산일보』, 『중외일보』, 『한성일보』, 『부산인민보』, 『인민해방보』, 『문예신문(文藝新聞)』, 『대중신문』, 『신한일보』, 『수산신문』, 『항도일보』, 『해상신문』 등), 잡지 매체(『문예조선』, 『중성』, 『전선』, 『한일』, 『음악주보』 등), 학우회지(『사범일보』, 『학교소식』 등), 음악교재(『노래동무』, 『중등가곡집』 등), 악보(<새로이 피스>), 기타 정부 기록물(『경남도지』 등)이나 연감(『1947년판 예술연감』 등) 들을 폭넓게 검토했다.
- 7) 오페라는 언어를 중시한다. 어떤 언어로 되어있는가에 따라 이탈리아 오페라, 프랑스 오페라, 독일 오페라 등으로 구분하므로 ‘창작 오페라’가 아닌 ‘한국오페라’로 칭한다.
- 8)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극장이나 다방, 학교, 문화보급과 교류를 촉진한 미곡공보원, 음악담론 형성의 토대인 신문방송 매체 환경 들의 공연예술 기반, 음악교육 기관의 설립과 운영, 연주단체와 음악인의 활동은 다른 지면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지역에서는 식민지시대부터 음악관련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1922년 11월 15~16일 국제관에서 부산음악대회를 개최한 부산교육회,<sup>9)</sup> 1924년 4월 16일 음악대회를 개최한 부산음악연구회,<sup>10)</sup> 1926년 9월 4일 부산진 유락관에서 음악회를 주최한 부산진소년음악회,<sup>11)</sup> 1927년 8월 3일 서부청년회관 운동장에서 제1회 부산음악회를 주최한 부산서부음악부,<sup>12)</sup> 1928년 10월 20일 부산공회당에서 음악회를 개최한 경남교육회,<sup>13)</sup> 1928년 12월 1일 첫 연주회를 개최한 부산음악협회,<sup>14)</sup> 1929년 11월 13일 제1회 정기대회를 개최한 부산예술연구회<sup>15)</sup> 등이 그 예다.<sup>16)</sup> 현재 이들 단체의 구성원, 성격, 운영, 해방 이후의 행로 등에 관해서는 실증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해방기 부산지역에서 결성된 음악단체는 1946년 경남음악협회, 1947년 경남음악교육연구회, 1949년 부산음악가협회, 노래하자회가 대표적이다. 이 시기 부산지역 음악인들의 단체 결성과 활동은 전국적인 경향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해방 직후 조직된 조선음악건설본부를 시작으로 수많은 단체들이 좌익과 우익, 중도 들의 서로 다른 이념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였다. 부산지역에서도 이러한 단체의 결성과 활동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46년 2월 14일 민주주의 국가 건설의 과정에서 모든 예술부문의 유기적 연결과 협의의 필요성에서 문학, 미술,

9) 『매일신보』, 1922. 11. 28, 4면, ‘부산음악대회 개최’.

10) 『시대일보』, 1924. 5. 21, 4면, ‘집회와 강연’.

11) 『동아일보』, 1926. 9. 6, 3면, ‘부산음악회’.

12) 『중외일보』, 1927. 8. 8, 4면, ‘부산음악회’.

13) 『매일신보』, 1928. 10. 22, 2면, ‘경남교육회에서 의미있는 삼대주최’.

14) 『부산일보』, 1928. 12. 2, ‘부산음악협회 더욱 정진을 다짐’. 이 기사는 제갈삼이 『조창기 부산음악사』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해당 일자의 신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15) 『중외일보』, 1929. 11. 13, 4면, ‘예술연구회 정기대회’.

16) 이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단체에서도 음악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부산청년동맹에서 부내 음악가 제씨의 후원으로 추계음악대회를 개최한 것이 단적인 예다. 『동아일보』, 1929. 10. 29, 3면. ‘야학 위하여 부산음악대회 대성황을 예감’.

연극, 음악 각 동맹지부를 결속하여 조선예술동맹 부산지구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이때 음악부에 박용성, 최익환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sup>17)</sup> 당시 정종길(성악)은 중앙의 맹원으로 활약하고 있었다.<sup>18)</sup> 하지만 이후 좌파 계열의 음악인들의 활동은 부산지역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sup>19)</sup> 서울의 이념 대립이 이 지역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지 못했는데,<sup>20)</sup> 부산이 미군 진주기지였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대립 양상이 격심하지 않았다고도 보는 견해도 있다.<sup>21)</sup> 그러나 좌파 문화단체인 경남문화단체총연맹의 활동을 감안할 때, 서울과 지역의 상황을 동일하게 볼 수 없지만, 지역은 서울의 일정한 영향권 속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미군 진주기지라는 지역적 특수성에서 좌파 음악인의 활동이 위축되었다는 진단 또한 다분히 추상적이다. 문학의 경우는 단체 또는 문학인들의 실질적인 대립은 없었으나 매체 선택에 따른 활동은 분명했기 때문이다.<sup>22)</sup> 서울의 음악계가 좌우대립이 격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대라는 물적 기반이 필요한 음악 장르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금수현의 경우, 우파 단체인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의 감사로 활동하는 등 다분히 우파적 성향을 보이는 한편, 좌파신문 『문예신문』에도 ‘특별사우’로 이름을 올리는 등 양측을 아우르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sup>23)</sup> 이처럼 해방기 부산지역 음악사회는 서울과 달리 참여한 이념 대립에서 일정하게 벗어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

17) 『민주중보』, 1946. 2. 16, 2면, ‘민주전선과 동 보조로 활발히 예술운동 전개-조선예맹 부산협의회 결성’.

18) 『음악』, 『경상남도지』 중권,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1963, 1109쪽.

19) 이 시기 좌파 음악인들의 조직 활동은 현재로서는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자료 부족에 기인하지만, 지역 음악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워야 할 지점이다.

20) 『음악』, 앞의 책, 1963, 1109쪽.

21) 계갈삼, 앞의 책 2004, 45쪽.

22) 이순옥, 「시인 염주용의 매체 활동과 『문예신문』」, 『석당논총』 52, 2012, 179쪽.

23) 『문예신문』 53호, 1948. 4. 2면, ‘악계 소식’.

다. 이는 지역음악인들이 이념이나 정치보다는 순수한 음악 활동과 교육과 봉사 등 사회 참여를 실현하는 데 주력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1. 경남음악협회와 경남음악교육연구회

경남음악협회는 부산부 좌천정 1007을 주소지로 1946년 1월 5일 창립되었으며, 역원은 고문에 윤인구·김하득, 대표 금수현, 성악부 김진수, 기악부 김영기, 작곡부 박용식, 교육음악부 조민하로 구성되었다. 음악 연구와 중앙 악단과의 연결, 경남음악문화의 보급을 목적으로 삼았다. 『음악주보』와 음악서 발행, 4회의 음악연주회와 학생음악콩쿠르 개최를 사업으로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학생음악콩쿠르는 1946년 4월 28일 방송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각별히 지부(통영지부, 진장옥)를 두고 있어 해방 직후 급조된 단체는 아니라 볼 수 있다. 전체 회원의 수가 260명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sup>24)</sup>

실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었다. 현재 그 전모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음악주보』는 경남음악협회의 기관지이자 음악교육 매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제1회 경남음악콩쿠르는 1946년 5월에 경남공립여자중학교(현 경남여고) 강당에서 개최되었다.<sup>25)</sup> 1950

24) 『음악단체』, 『1947년판 예술연감』, 예술신문사, 1947, 135쪽.

25) 이 대회에서 국민학교 5학년 김경애(노래)와 중학교 부문 경남공립여자중학교 김완석(피아노)이 우승을 차지했는데 각각 금일치과병원(장), 김준원 변호사의 딸로 기록하고 있다. 콩쿠르 수상자가 의사, 변호사 등의 당대 명망 있는 집안의 자제라는 점을 통해 이른 시기에 서양음악이 문화자본화 되어 가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다. 금일치과병원은 후일 몇몇 공원을 후원한다. 첫 회 콩쿠르이니만큼 우열을 가리기보다 하나의 시범이 된 것으로 평가하며 전국 최초의 시도라 한다. 이때 경남공립여자중학교 합창단이 감탄스러운 화음을 들려주었으며 이 합창단은 그해 가을에 열린 문교부 주최 전국합창제에 경남 대표로 참가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금수현, 『나의 시대 70』, 월간음악 출판부, 1989, 102쪽.

년 6월 25일 제5회 경남음악콩쿠르가 동광국민학교에서 개최된 사실을 통해 매년 행사를 빠짐없이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전쟁 발발 당일인데도 예선까지 치른 점을 볼 때 당시의 음악적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 그밖에 경남음악협회는 1946년 7월 19일~20일 이틀간 수해구제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sup>26)</sup> 중앙국민학교에서 열린 이 음악회는 경상남도 학무과, 부산부 학무과, 부산방송국, 민주중보사, 부산신문사의 후원으로 추진된 대규모 행사로, 협회의 위상과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팸플릿에는 다음과 같은 ‘인사말씀’이 수록되어 있다.

이 음악회는 -- 수해재민을 구제하고 싶은 우리나라오는 마음이 뭉쳐서 열게 되었습니다. 마침 서울서 오신 명가수 이안드레아씨와 바리톤 박용흡씨를 마지하여 근래에 없는 프로구람을 짜게 되었는데 기쁩니다. 부산현악단들께에도 감사드립니다. 부산합창단은 모두 바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나 부산문화를 위하여 매일 연습 노력하였습니다. 잘 감상하셔서 세계수준까지 쾌족질 하여 주시오.<sup>27)</sup>

서울에서 연주자를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현제명, 박태준, 이건우, 안기영 등 서울지역 작곡가들의 창작곡과 금수현의 창작곡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경남음악협회의 결성 목적인 ‘중앙 악단과의 연결’ 및 ‘경남 음악문화의 보급’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수해재민 구제”라는 개최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음악을 통한 사회 참여 활동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부산합창단은 “각계에 중직(重職)을 가진 음악가들이 매 일요일 모아서 예술적 곡을 연구하는 단체

26) 『부산신문』, 1946. 7. 16. 1면, ‘광고’. 『부산신문』, 1946. 7. 23. 2, ‘수해구제음악회 성황리에 종막’. 당시 수해 피해는 심각한 문제여서 식민지시대부터 수해구제 관련 음악회와 수재의연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부산에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시대일보』, 1925. 7. 31. 3면, ‘구제음악성황’.

27) 제갈삼, 앞의 책 63쪽.

인데 현재 남성 10명, 여성 10명”이라 소개하고 있는데, 사회 각계의 지도층 인사들을 규합한 단체로 추정된다. 합창단 외에도 조민하, 서정권, 신덕균,<sup>28)</sup> 김희룡으로 구성된 남성 4중창이 눈길을 끈다. 조민하는 도학무과 영어과 장학사, 김희룡은 도학무과 직원, 서정권은 은행원으로 추정된다.<sup>29)</sup> 표면적으로는 아마추어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회적으로 명망과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음악으로 결합시키는 장치를 여럿 두고 있는 셈이다.

경남음악교육연구회는 1947년 동지들의 협조를 얻어 금수현이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 단체다.<sup>30)</sup> 주소지는 ‘부산부 보수동 2가 24’로 되어 있다.<sup>31)</sup> 이 단체는 1948년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음악교재인 『중등가곡집』을 발행하기도 했다. 단체명이나 활동에서 드러나듯이, 학교 음악교육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고 음악교재의 발간과 보급을 통해 경남지역 학교 음악교육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 2. 부산음악가협회

28) 방부원 소장 팸플릿을 수록한 제갈삼의 책에는 신덕균(申德均)이라 기록되어 있다. 제갈삼, 위의 책, 63쪽. 한편, 1946년 8월 15~16일에 개최한 ‘해방기념공연 시와 음악과 가요의 성전’ 팸플릿에는 신형균(申衡均), 서정권, 김홍태, 김희조(金喜祚)로 구성된 남성 4중창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갈삼은 김희조가 김희룡(龍)의 잘못이며 신형균은 ‘남성여중 영어교사로 있는 테너’로 소개하고 있다. 제갈삼, 위의 책, 56~58쪽. 이 공연에 남성 4중창 멤버로 출연한 이가 신형균인지 신덕균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신덕균은 1959년 놀원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부산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29) 제갈삼, 위의 책, 63~64쪽.

30) 『음악』, 앞의 책, 1109쪽.

31) 경남음악협회가 경남음악교육연구회로 개편되었다는 견해도 있으나, 뚜렷한 근거는 없다. 류혜운, 『부산음악사(1946~1965)』, 『음악과 민족』 16, 1998, 10쪽. 1949년 4월 24일부터 5일간 경남중학교에서 경남미술교육연구회 후원으로 미술전람회가 개최되었다. 장르는 다르지만 경남음악교육연구회와 명칭이 유사하다. 일정한 관련이나 영향 관계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부산일보』, 1949. 4. 24. 2면, ‘경중미술전람회’.

부산음악가협회는 1949년 12월에 열린 ‘정복갑 독창회’ 팸플릿의 정회원 명부와 찬조회원 규약을 통해 그 실체를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sup>32)</sup> 정회원으로는 간사장 정복갑, 고문 양성봉, 총무 홍일파, 작곡부 간사 윤이상, 성악부 간사 김호민, 기악부 간사 배도순, 평론부 간사 김점덕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당시 부산음악계에서 순수 클래식음악 연주 활동에 주력하는 전문음악인들의 결합 단체로 보이며, 초대 부산시장(1946.1.24 ~ 1948.11.6)을 지낸 양성봉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찬조회원은 월 2백원<sup>33)</sup>을 납부해야 하며, 부산음악가협회 주최의 공연에 참석할 수 있다. ‘본회 회보’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기록을 통해 기관지를 발행함으로써 단체 활동과 회원들의 결속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sup>34)</sup> 음악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배타적이며, 미국공보원<sup>35)</sup>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등 다분히 친미·엘리트주의적 음악을 지향하고 있다. 부산음악가협회가 주최한 공연 목록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부산음악가협회 주최 공연

일자	행사명	장소	비고
1949. 12. 20. <sup>36)</sup>	정복갑 독창회	부산미국 공보원	제1회 정기연주회로 간주
1950. 1. 28. <sup>37)</sup>	부산음악가협회 제2회 정기연주회 ‘미국 민요의 밤’	미공보원	미국공보원 주최

32) ‘방부원 소장 팸플릿’, 제갈삼, 앞의 책, 77쪽.

33) 당시 물가동향을 참고하면, 쌀 1되 가격은 320원이다. 『자유민보』, 1950. 1. 28. 2면, ‘물가시세’.

34) 현재 이 회보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35) 이 시기 부산미국공보원은 단순한 기관이나 공연장소가 아니라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Ideological state apparatus)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부산미국공보원의 음악공연 개최와 문화정치』라는 제목으로 다른 자리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36) 『부산일보』, 1949. 12. 15. 2면, ‘광고’.

1950. 2. 21~22. <sup>38)</sup>	제3회 부산음악가협회 연주회 ‘부산현악4중주단 발표 대연주회(제1회)’	공보원	
1950. 3. 23~24. <sup>39)</sup>	부산음악가협회 제4회 정기공연 ‘제3회 학생 피아노 연주회 모짜르트의 밤’	공보원	
1950. 6. 6.~7. <sup>40)</sup>	제5회 부산음악가협회 연주회 ‘아코디온 연주’	공보원	
1950. 7월 초순 <sup>41)</sup>	오페라 <춘향전>		2막 5경, 부산음악가협회 주최, 부산문화기자회 후원, 개최 여부 불분명

부산음악가협회는 1949년 12월 20일 정복갑 독창회를 첫 연주회로 간주하여 정기연주회 차수를 매겨나갔고,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현악 4중주 활동, 학생 피아노 연주회, 아코디온 연주 등 다채로운 기획을 추진하였다. 1950년 3월에 개최된 ‘학생 피아노 연주회’에는 서울음대 교수의 반주와 독주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음악회에 출연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스터 클래스(master class)<sup>42)</sup>를 개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950년 5월에 예정된 김점덕 독창회와 7월 초순에 예정된 오페라 <춘향전>은 개최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춘향전>의 경우, “열심히 연습 중”이라는 신문기사와 출연진 명단이 실렸는데, 『산업신문』에는 ‘부산음악협회(부산음악가협회)’ 주최로 표기되어 있고,

37) 『자유민보』, 1950. 1. 29. 2면, ‘미국민요의 밤 개최’.

38) 『산업신문』, 1950. 2. 21. 2면, ‘광고’.

39) 『산업신문』, 1950. 3. 17. 1면, ‘광고’.

40) 『산업신문』, 1950.6.4. 2면, ‘문화소식’. 『산업신문』, 1950. 6. 7. 1면, ‘광고’. 『자유민보』, 1950. 6. 4. 2면, ‘아코디온 연주회’

41) 『산업신문』, 1950. 6. 15. 2면, ‘문화소식’. 『자유민보』, 1950. 6. 15. 2면, ‘가극 <춘향전> 음협서 공연’.

42) 음악, 무용 등 예술 분야 전문가나 거장이 재능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기 수업이다. 유명인의 마스터 클래스를 유료로 진행하여 부족한 출연료를 충당하는 경우도 있다.

『자유민보』에는 ‘부산음악가협회’라 되어 있다. 게다가 부산음악가협회의 그간 활동과 지향점을 볼 때, <춘향전> 공연은 다소 뜻밖의 기획이다. 현재 부산음악가협회 회원 명단 전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1950년 6월 15일자 『자유민보』 기사의 출연진 면면을 살펴볼 때, “기획 정환무, 각색 김수돈, 작곡 최술문, 연출 허일영, 이몽룡에 김호민, 춘향에 박영희, 번사또에 정훈” 가운데 김호민을 제외하고는 전술한 정회원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 없다. 따라서 이 단체가 영역 확대의 방편으로 <춘향전>을 기획했는지, 주관 단체명을 오기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기존의 부산음악가협회 활동이 기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춘향전> 기획은 성악 분야의 새로운 시도로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3. 노래하자회

노래하자회는 음악을 통해 풍요로운 정서를 함양하는 한편 음악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생활 속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미래의 희망을 담은 흥겨운 노래를 부르자는 것이다. 김수현은 일찍이 경남공립여자중학교 재직 시절부터 이와 유사한 노래운동을 주도한 바 있다. “우리들이 쉴 때 부를 아담스러운 노래를 만들고자 그 가사를 여러 동무들 중에서 모집합니다.”라는 학교소식지 가사 모집 안내 광고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sup>43)</sup> 응모자격이 “본교 직원, 생도, 부형, 모자”를 아우르고 있어 대중적인 노래운동인 노래하자회 활동의 전사로 읽어도 무방하다.

해방기 민족문화 수립의 도정에서 노래하자회는 음악대중화와 관련

43) 가사를 내는 곳은 “본교 도서실 안 가사캐썬 안”, 마감은 “11월 20일”이다. 『학교소식』 제9호, 경남공립여자중학교, 1946. 11. 5, 8쪽.

하여 상당한 가치를 지닌 기획이다.

생활 속에 기쁨을 가지고 앞날의 희망을 바라보고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흥겨우면서도 새로운 참된 노래를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고저 그간 부내 문화인 수씨가 다각적인 연구를 거듭하던 중 드디어 래(來) 21일 하오 3시 남일초등학교 강당에서 ‘노래하자운동’ 창립총회를 거행하기 되었다고 하는 바 일반의 참석을 요망한다고 한다.<sup>44)</sup>

한편 광고에 나타난 창립의 변에서도 비슷한 취지를 엿볼 수 있다.

#### **모여라! 민족문화의 선봉 ‘노래하자 운동’ 창립총회**

여러분! 하로에 한 번이라도 노래를 합니까? 여러분! 저속 노래를 불러 되겠습니까. 우리가 겨레를 위하여 자손을 위하여 매 드러야 할 것은 1. 새로운 노래, 2. 같이 노래하는 마음

**특별연주** 김호민(金皓民), 정복갑(鄭福甲), 허수구(許殊九), 한영철(韓永哲), 남일헌생(南一憲生)<sup>45)</sup>, 윤홍수(尹洪修), 박정숙(朴貞淑), 김영애(金英愛), 김순열(金淳烈, 예대 피아노교수), 부산사중주단<sup>46)</sup>

전문음악인뿐만 아니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결성하였으며, 특정인이 주도하였다기보다는 지역 내 수많은 문화인들이 중지를 모은 결과라 볼 수 있다.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저속한 노래”를 부를 것이 아니라 “겨레와 자손”을 위하여 매일 들어야 할 것은 “새로운 노래”이며 “같이 노래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야말로 해방기 민족국가 건설의 과제로 제기된 ‘민족문화의 선봉’을 자임했던 것

44) 『부산일보』, 1949. 1. 20, 2면, ‘노래하자 운동 내일 창립총회’.

45) 창립총회가 남일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것으로 보아 ‘남일학생’의 오기로 보인다.

46) 『부산일보』, 1949. 1. 20, 1면, ‘광고’.

이다. 이를 통해 노래하자회가 음악교양을 지닌 이들의 단순 음악동호회가 아니라 노래 ‘운동’을 표방한 단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금수현의 기록에 따르면 음악교사 외에 도학무과 장학사 조민하, 화가 우신출, 종교인 김희용 등을 포함하여 30명가량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며, 어떤 회에는 800명이 운집하기도 했다고 한다. 모임의 운영 방법은 쉬운 노래를 만들어 매월 미국공보원에서 발표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되, 선창은 콩쿠르 입상자들이 했다.<sup>47)</sup> 1949년 1월 20일 남일국민학교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후, 같은 해 2월 20일 제2회 공연, 3월 27일 제3회 공연, 1950년 2월 5일 제4회 공연을 연이어 개최했다. 제1회 공연에는 부산사중주단, 김호민, 정복갑, 허수구, 한영철, 남일교 학생, 윤홍수, 박정숙, 김영애, 예대(현 서울대 음대) 피아노 교수 김순열의 특별 연주가 있었다. 제2회 공연은 오후 2시 동광국민학교 강당에서 열렸으며<sup>48)</sup> 제3회 공연은 ‘피아노 연주회’를 표방하는데 김경자, 정향강, 정순영, 각원배, 한옥희, 김상용, 박순희, 최정애, 정우영, 박지로 등이 출연했다. 정복갑, 김창배의 가창 지도로 이루어졌으며, 오명룡, 김진안의 찬조 독창이 있었다.<sup>49)</sup> 제4회 공연에는 김창식 작곡의 낙강변곡 <농부가>를 박향의 지도로 불렀다.<sup>50)</sup> 한편, 홍일파(洪一波)의 평론 『무위의 일년—기축년 함도악단 회고』 하편에 노래하자회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언급이 나온다.

【평론계】 음악평론은 음악가가 써야 하는 것이다. 어중이떠중이 문외한이 가냘픈 솜씨로 몇 마디 적어내는 것마저 평론이라 하여서 여기에 문제시하여 논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한동안 『문예신문』 지

47) 금수현, 앞의 책, 120쪽.

48) 『부산일보』, 1949. 2. 19. 2면, ‘광고’.

49) 『부산일보』, 1949. 3. 27. 2면, ‘광고’.

50) 『부산일보』, 1950. 2. 5. 2면, ‘문화단신’

상을 통하여 ‘노래하자회’의 오늘을 예언한 김점덕씨의 평론과 금수현씨의 항변이 하나의 파문을 던졌을 뿐 아무런 필설을 보지 못한 채 한 해가 저물고 만 것이다.<sup>51)</sup>

1949년 1월 창립부터 3월까지 매월 발표회 형식의 공연이 개최되다가 1950년 2월에 4회 공연을 개최한 것으로 미루어 홍일파의 시평에 언급된 『문예신문』 지상 논쟁이 공연 중단과 재개에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 부산지역 음악사회에서 노래하자회의 활동이 논란이 된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김점덕의 평론과 당시 문예신문사 특별사우였던 금수현의 항변이 지역사회에 “파문”을 던졌을 만큼, 이 단체는 기존 음악계와 적지 않은 불화를 초래한 듯하다. 그러나 전문 음악인과 아마추어 음악인이 결합하여 음악 창작과 향유 기반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문화민주주의와 예술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 Ⅲ. 음악매체의 발간

식민지 조선에는 몇몇 음악 전문 잡지와 신문이 유통되었다. 『월간음악』,<sup>52)</sup> 『동경음악신문』,<sup>53)</sup> 『음악신문』<sup>54)</sup> 등 동경에서 발행된 일문 잡지들이었다. 조선어로 된 최초의 잡지는 1925년 홍영후(洪永厚, 홍난파)가 발행한 『음악계』다.

51) 『부산일보』, 1950. 1. 6. 2면, ‘홍일파, 無爲의 一年—己丑年 港都樂壇 回顧(하)’. 이 시평은 1950년 1월 5~6일에 걸쳐 상, 하편으로 수록되었다.

52) 『월간음악』 6월호를 소개하고 있다. 『조선중앙일보』, 1936. 6. 11. 3면, ‘신간안내’.

53) 제4호를 소개하고 있다. 『동아일보』, 1932. 3. 5, 5면, ‘신간소개’.

54) 『음악신문』 4월호를 소개하고 있다. 『부산일보』, 1915. 5. 8, 1면, ‘신간소개’. 이 매체는 부산에도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시내 서대문동에 있는 홍영후 씨의 경영하는 연악회는 이번에 새로히 기관잡지 음악계를 창간하여 발행하였는데 조선에 있어서 순전한 음악잡지로는 처음일 뿐 아니라 신작 악보 논문, 평년 명작 가극 개관 명곡 로만쓰 등 내용이 자못 풍부하다더라.<sup>55)</sup>

연악회(研樂會) 기관지로 발행한 『음악계』는 조선 최초의 음악 전문 잡지로 평가되며, 주로 신작 악보, 논문, 평전, 명작, 공연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조선어로 된 음악 관련 잡지로는 경성음악출판사에서 발행한 『교회음악』,<sup>56)</sup> 조선교육연구회에서 발행한 『조선교육음악』<sup>57)</sup>이 있다.

해방기 부산에서 발간된 대표적인 매체로 『음악주보』를 들 수 있다. 이 매체는 경남음악협회의 기관지로, 1946년 2월 5일 제1호가 발간되었다. 발간 목적은 ‘음악교육의 촉진’이다.<sup>58)</sup> 연악회에서 발간한 『음악계』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음악계 소식을 전하는 한편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 악보를 수록하고 음악 교양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제공했다. ‘음악교육 촉진’을 목적으로 표방하는 만큼 전문음악 차원의 지식 제공이나 논쟁 촉발보다는 교육적 콘텐츠의 확산에 집중한 점도 『음악주보』의 특징이라 하겠다.

『음악주보』의 등록일은 1946년 4월 20일, 허가일은 1947년 2월 18일이다. 서울에서 발행된 『서울음악신문』의 허가일이 1946년 7월 3일이나 1947년 5월 30일자 신문이 제4호인 것으로 미루어 실제 발행은 『음

55) 『동아일보』, 1925. 4. 27. 2면, ‘『음악계』 창간’.

56) 11월호를 소개하고 있으며 정가는 20전이다. 『동아일보』, 1937. 12. 7. 4면, ‘신간 소개’.

57) 제3집을 소개하고 있으며 정가는 20전이다. 『동아일보』, 1938. 12. 25. 3면, ‘신간 소개’.

58) 금수현, 앞의 책, 101쪽.

악주보』보다 늦은 것으로 보인다.<sup>59)</sup> 음악과 무용 예술의 전문잡지로서의 순간(旬刊) 『음악신문』이 1950년 4월에 창간<sup>60)</sup>된 점을 미루어 볼 때, 부산에서 『음악주보』의 창간과 발행은 해방기의 선구적인 매체 활동이 아닐 수 없다. 크기는 4×6 배판 4면<sup>61)</sup>이며 처음에는 등사본으로 발간하다가 곧 악보를 제외하고 활자화했다. 유가지(有價紙)인데도 희망하는 학생이 많아 2천부까지 발행하여 매주 각 학교에 배부했는데 지방은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sup>62)</sup> 금수현의 유명한 가곡 <그네>도 이 매체를 통해 서울에 알려졌다.<sup>63)</sup> 이 사실로 미루어볼 때 『음악주보』는 부산에서 발간되어 전국적으로 배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곡 <그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명곡으로 자리매김한 데는 곡의 우수성에 더하여 매체의 역할이 일조한 셈이다. 매체 기반이 취약한 시대에 『음악주보』의 발간은 지역 음악사회의 문화생산력과 향유를 높이는 상당한 힘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1947년 5월 30일 발행된 제47호 1면에는 ‘가.사.ㅎ’의 음악회 참가기 「제1회 전국 중등학교 음악제 참석하여」와 이틀간의 「제1회 음악제 차례」를, 2면에는 금수현 작곡의 <어느 학교 응원가집> 곡보가 수록되어 있다.<sup>64)</sup> ‘가.사.ㅎ’은 5월 10일 부산지역 참가학교 대표로 선발된 경남 여중고를 이끌고 이 대회에 참가한 금수현이다.

### A. 綠軍歌

59) 『서울음악신문』 제4호에는 음악계 소식, 인사, 초등학교종합음악대회 결과와 각종 공연 소식뿐만 아니라 이승학의 『음악감상』, 「슈만의 音樂訓戒六十八箇條」, 박은용의 『발성법 강좌』 등이 수록되어 있다.

60) 사옥은 총렬로 2가 국제문화사 내 위치하며 사장 최희남, 편집부 류갑천, 총무부장 성기석, 문화부장 조준옥, 사업부장 이창식 등의 진용을 갖추었다. 『음악신문』 창간, 『자유신문』, 1950. 4. 4, 2면; 「순간 음악신문 창간」, 『동아일보』, 1950. 4. 8, 2면.

61) 8절지 1장 4면을 프린트로 내었다고 한다. 금수현, 앞의 책, 103쪽.

62) 금수현, 위의 책, 103쪽.

63) 금수현, 위의 책, 108쪽.

64) 『음악주보』 47호, 1947. 5. 30.

오월달 미풍은 우리들을 부른다 코발-토 하늘 아래 힘차게 싸우자  
유니폼- 씩씩하게 뛰어라 녹군 당당한 승리는 라라라 녹군

**B. 白軍歌**

푸른 대기 깨트리고 아우성치는 백군 힘 있는 흰 덩기는 기빨 높이 날리도다  
기빨 높이 날리도다 이기자 이기자 승리의 외침은 백군뿐이다

**C. 紅軍歌**

푸른 하늘 아래 휘날리는 기빨 붉다 붉다 붉다 우리 3반  
(붉은 뿔 머리에 매고 정열은 용소습친다 친다 친다 우리 홍군)  
승리의 영환을 누리쓸 때까지 싸우라 싸우라 모든 힘 다 모아  
(월계관 머리에 받-을 때까지 싸우자 싸우자 이길 때까지-)

**D. 黃軍歌**

첫여름의 햇빛은 이 마당을 쬐이고 우리들의 얼굴은 기-쁨에 빛-  
난다 오! 오늘은-  
즐거운 체육회 쫓아라 쫓아라 노랑빛 라라라 우리는 이긴다 뛰어라  
뛰어라 노랑빛 라라라 이겨라 이겨라

**E. 靑軍歌**

힘차게 약동하자 4의 2반 동-무들아 오늘의 승리는 우리 것이다  
푸레이 푸레이 푸레이 푸레이 우리 크라쓰 날러라 날러라 날러라 날  
러라 승리의 깃발

- <어느 학교 응원가집> 전문

이 노래는 녹군가, 백군가, 홍군가, 황군가, 청군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녹군가만 2/4박자, 나머지는 모두 4/4박자며 주 3화음을 중심으로 사용했다. 홍군가만 1, 2절의 가사를 두고 있는데 응원가답게 경쾌한 리듬과 쉬운 멜로디로 되어 있어 따라 부르기 쉬우며 청중을 고무하는 “이기자, 싸우라, 싸우자, 이겨라, 날러라”를 반복함으로써 응원 특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당시 금수현은 이러한 응원가를 비롯하여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행사곡들을 폭넓게 창작한 것으

로 보인다. 해방기 학교 음악교육의 현장성을 강조하면서 음악의 대중화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문화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문화 활동을 펼친 사람 가운데 하나가 금수현이다. 뒷날 그는 음악교육의 향상이라는 사명감을 다하였다는 측면에서 만족감을 느꼈다고 술회하고 있다.<sup>65)</sup> 이처럼 『음악주보』는 음악 전문매체가 전무했던 척박한 문화 환경에서 음악인뿐만 아니라 학생, 지역민들에게도 널리 보급된 음악전문지로서, 음악문화를 보급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인용문의 <어느 학교 응원가집>에서 알 수 있듯이, 발표 지면이 부족한 매체 환경에서 창작곡을 발표하는 지면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음악인들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부산지역 음악사회의 동향을 전달하는 소식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또 다른 매체로는 학습용 교재를 들 수 있다. 해방기는 교사와 교재가 극히 부족한 시대였다. 음악 교과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군정은 사범학교 본과, 부설교원양성과, 교원양성기관 등을 통한 음악교사 배출과 교재 제작에 주력하였는데도 교사와 교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음악교재의 제작과 배포는 당시 음악사회와 학교사회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지역에서는 1948년 12월 경남음악교육연구회의 『중등가곡집』, 1948년 11월 최술문(崔述文)의 『음악이론교본』, 1949년 4월 경남초등교육연구회의 『노래공부』 등의 다양한 음악교재가 발간되었다.

우선, 『중등가곡집』에는 창작곡 11곡과 번안곡 15곡을 포함해 총 26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창작곡은 홍난파, 안기영, 김순남, 이건우, 한상기 등 명망 있는 작곡가들의 작품 5곡과 부산 작곡가의 작품 6곡<sup>66)</sup>으

65) 금수현, 앞의 책, 1989, 103쪽.

66) 윤이상 작곡·목일신 노래 <해지는 강변>, 박용식 작곡·김정한 작사 <자장가>, 박노춘 작사·최덕해 작곡 <춘삼월>, 홍일파 작사·작곡 <추혼풍경소곡>, 충무공 시조·금수현 작곡 <한산섬>, 이승자 시·김학성 작곡 <청춘의 노래>가 부산 작곡가

로 구성되어 있다.<sup>67)</sup> 편찬위원은 정복갑, 윤이상, 김집덕, 한의성, 박용식, 한상기, 금수현, 최덕해, 김학성, 김호민, 오명룡, 변종택, 김창배, 하규한, 유신, 오우석이다. 『머릿말』을 통해 교재 편찬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해방 후 학교 음악 수준의 진로와 아울러 무수한 음악 출판물이 나왔으나 옳은 교재가 충만히 실린 책은 드물었다. 좋은 노래를 널리 구하는 교사와 학생은 많은 책을 사야 했다. 뿐 아니라 학생이 갖는 책은 통일이 되지 않았다. 이 고충을 적는 우리 “실지 교육자”들은 장차 우리 학교 - 음악의 나아갈 방향에 가까운 노래들을 구하여 많은 곡을 추리고 추려 여기 한 권의 책으로써 내어놓게 되었다. 이 책은 금후 악곡 출판에 있어 좋은 품성을 쌓는 데 적절하며 또 즐겨 부를 수 있는 곡들만으로 짜여져야 할 책의 첫 출발이 되기를 염원하며 남녀 중등학교의 노래책으로써 내어놓는 바이다.<sup>68)</sup>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을 향한 도정에서 교과서의 출판과 보급은 가장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음악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해방기에는 “무수한 음악 출판물”이 양산되었으나, 학교 현장에 걸맞은 교재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이 되지 않”은 책이나 “장차 우리 학교 - 음악의 나아갈 방향에 가까운 노래들”을 수록한 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는 책의 기준은 “악곡 출판에 있어 좋은 품성을 쌓는 데 적절”해야 한다는 점, “즐거 부를 수 있는 곡들만으로 짜여”진 것이다. 이것이 경남음악교육연구회가 교육현장에서 널리 활용할 남녀 중등학교 노래책을 내는 까닭이라 하겠다.

의 작품이다.

67) 이 매체에 대해서는 다른 자리에서 고(稿)를 달리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68) 경남음악교육연구회 엮음, 『머릿말』, 『중등가곡집』, 전음사, 1948, 1쪽.

최술문이 엮은 『음악이론교본』은 도서 발간 광고 기사만 존재할 뿐 여전히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 이 교본은 “음악에 대한 모든 지식과 상식을 초보자라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며, “남녀중등학교 재료(材料)로서는 물론이요 일반 여러분도 필독하여 음악의 상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sup>69)</sup> 당시 문교부의 새로운 교수요목에 따른 남녀중학교용 중등음악교본인 나운영의 『중등음악』,<sup>70)</sup> 정상록의 『중등음악』,<sup>71)</sup> 이승학의 『남녀 중등음악교본』<sup>72)</sup> 등이 앞다투어 생산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책 또한 새로 제정한 교수요목을 일정하게 반영한 교재로 보인다. 광고에서 알 수 있듯이, 최술문의 저작은 중등학교 음악 부교재 또는 성인 대상 음악입문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층이 넓은 편이다. 반면, 1949년 4월 경남초등교육연구회 김원여(金元汝)<sup>73)</sup>가 엮은 『노래공부』(전6권)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음악지식의 이론과 실체를 교육하는 부교재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74)</sup> 저학년에서는 리듬과 음정 연습과 같은 음악의 기초를, 고학년으로 갈수록 음정 연습뿐만 아니라 악기 소개, 음악이론, 악보의 발달, 음악가 이야기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sup>75)</sup> 특히 이 교재는 기존의 문교부 발행 『초등노래책』과는 달리 악보 없이 다양한 동요를 수록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처럼 『음악주보』와 음악교재를 비롯한 음악매체의 발간은 시대 담론을 명징하게 담아내는 그릇이자 새로운 담론을 추동하는 분화구로서 기능하였다. 어려운 출판 환경 속에서도 매체 발간의 중요성을 인지하

69) 『부산신문』, 1948. 11. 23. 1면, ‘(광고) 음악이론교본’.

70) 『국제신문』, 1948. 8. 31. 2면, ‘(광고) 중등음악’.

71) 『국제신문』, 1948. 9. 2, 1면, ‘(광고) 중등음악’.

72) 『국제신문』, 1948. 9. 1, 1면, ‘(광고) 남녀 중등음악교본’.

73) 김원여는 1930년 부산진보통학교를 시작으로 부민보통학교, 남양심상소학교, 봉강심상소학교를 거쳐 경남 부산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74) 당시에는 1948년 4월 문교부에서 발간한 『초등 노래책』 1~6권이 음악교과서로 사용되었다.

75) 김원여, 『노래공부』 2·5·6권, 삼공출판사, 1949.

고 발간을 추진함으로써 해방기 부산지역 음악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Ⅲ. 노래운동과 음악극 · 한국오페라 창작 활동

#### 1. 노래운동의 확산

한국 근대 최초의 서양식 노래는 19세기 천주교, 기독교의 전래와 더불어 보급된 찬송가다. 근대계몽기에는 서양식 악곡에 가사를 얹은 창가가 학교제도 안팎에서 널리 유통되었으며, 1920년대 이후에는 창작동요와 창작가곡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윤극영, 윤석중, 박태준, 홍난파 등을 중심으로 한 창작동요는 전통음악보다는 서양음악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장르화 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 노래는 밝고 명랑한 선율, 간결한 형식, 민족적 정서를 토대로 하고 있어 애국심과 민족혼 고양에 기여한 바가 크다. 식민지시대 말기에는 내선일체와 전쟁 수행의 도구로 군가풍의 노래가 폭넓게 유통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김순남, 이진우 등을 중심으로 해방의 기쁨과 새로운 민족국가건설의 열망을 담아 대중들이 따라 부르기 쉽게 작곡한, 이른바 해방가요가 널리 불렸다. 지역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라 여겨진다. 현재 해방기 부산지역에서 창작된 노래들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몇몇 음악 관련 기사나 공연팸플릿을 통해 당시 노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해방 1주년을 맞아 조선청년문학가협회 경남본부에서 주최한 ‘시와 음악과 가요의 성전’에서 권복순이 <여명의 노래> (이진우 작)를 독창으로, 부산합창단이 <무궁화는 피고지고>(박태준 곡), <8월 15일>(금수현 곡)을 합창으로 부른 것이 단적인 예다. 하지만

이 시기 다양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지역음악인들의 활동을 온전하게 밝히기에는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이 시기 금수현의 음악적 실천은 부산음악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 가운데 하나다.

금수현은 해방 직후 <새노래>와 <8월 15일>을 작곡하여 널리 보급하였다. <새노래>는 해방 직후 동래공립중학교(현 동래고) 학생들이 거리 행진을 하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 가운데 부를만한 노래가 필요하다고 여겨 작곡한 곡이다. “삼천리 강산에 새빛이 트는 날”로 시작하는 4행 3절의 가사는 동래고등여학교(현 동래여고) 교사 이중희에게 부탁해 만들었다. 금수현은 곡을 손바닥 크기로 프린트하여 여러 조선학교로 보냈는데, 이튿날부터 학생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였다고 한다.<sup>76)</sup> <8월 15일>은 당시 경남도청 학무국장 겸 부산사범학교 교장<sup>77)</sup>으로 일했던 윤인구(尹仁駒)의 시에 붙인 곡이다. <새노래>를 들은 윤인구가 금수현에게 작곡을 부탁하였다. 총 3절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1절) 죽음의 쇠사슬 풀리고 자유의 종소리 울린 날

삼천만 가슴엔 눈물이 샘솟고 삼천리강산엔 새봄이 오던 날

아 - 동무여 그날을 잊으라

우리의 생명을 약속한 그날을 8월 15일 8월 15일

(2절) 어둠의 절벽이 문혀져 해방의 기쁨이 날린 날

삼천만 가슴엔 새노래 샘솟고 삼천리강산엔 무궁화 피던 날

아 - 동무여 그날을 잊으라

우리의 영광을 보여 준 그날을 8월 15일 8월 15일

(3절) 뭉치세 삼천만 동포여 찾으세 삼천리강산을

76) 금수현, 앞의 책, 88쪽.

77) 이연직 엮음, 『경남인명록』, 동양출판사, 1947, 1~15쪽.

지고 온 쓰라린 멍에를 버리고 새로운 만년의 역사를 써 가세  
 아 - 동무여 일어선다 이제  
 자유의 종소리 힘차게 울린다 8월 15일 8월 15일

1절과 2절에서는 “죽음의 쇠사슬”과 “어둠의 절벽”을 헤치고 맞은 해방의 기쁨과 영광을 격정적으로 표현했다. “자유”, “새봄”, “생명”, “무궁화”는 ‘8월 15일 그날’이 부여한 신생의 가치다. 하여 3절에서는 이러한 감격 속에서 “새로운 만년의 역사”, 그러니까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을 향한 삼천만의 단결과 노력을 강조한다. “뭉치세”, “찾으세”, “써 가세”의 청유형은 이러한 민족적 호소를 잘 드러낸다. 그런 만큼 가락 또한 전통적인 형식에서 취해 해방의 감격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이 노래는 민요 가락을 바탕으로 한 데다 전통 오음계를 활용한 4분의 4 박자 행진곡풍 곡이라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었다. 또한 단순한 형식이지만 경쾌한 멜로디와 힘이 넘치는 분위기 덕분에 즐겨 불렀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일선 학교에 악보가 배포되었으며 각종 행사에서도 빠지지 않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이 곡은 지금껏 잊혀져 있다가 2015년 동래 고역사관에서 악보가 발견되었다. <새노래>와 <8월 15일>은 순수하게 해방의 기쁨과 감격, 희망을 담은 우리말 곡으로 이념적 메시지를 담은 해방가요와는 맥락이 다르다. 해방 직후라는 시기와 부산·경남 전역에서 널리 불렀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전술한 노래하자회 활동도 기억할만한 노래운동이다. 노래하자회의 공연은 쉬운 노래를 만들어 발표하고 콩쿠르 입상자들이 선창하는 가운데 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금수현도 “노래가 없고 보면 무슨 재미로”로 시작하는 <노래가 없고 보면>을 발표했으며, 김창식의 <농부가>를 비롯해 윤이상 등 여러 작곡가의 곡을 모집하여 발표하였다.<sup>78)</sup> 창립총회의 변을 통해 저속한 노래가 아니라 바람

직한 정서를 함양하는 데 필요한 노래, 새로운 노래를 만들고 보급하려 했다는 점, 함께 노래하는 행위가 해방 이후의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노래하자회는 음악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문화계 전반을 아우르며 노래운동을 확산해 나갔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2. 금수현과 음악극

해방기 부산음악 사회의 또 다른 특징으로 학생 음악극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남공립여자중학교 학생극 <을불의 고생>(1946년 봄 추정, 동교 강당)<sup>79)</sup>, <궁복의 딸>(1946. 11. 9~10, 동교 강당)<sup>80)</sup>, 부산도립극장 음악극 <삼손>(1948. 8. 15, 도립극장)<sup>81)</sup>, 남조선여자중학교(현 남성여고) <호반의 집>(1948. 12. 29~27, 동교 강당)<sup>82)</sup>, 부산사범학교 <화목란>(1949. 3, 동교강당 및 부산극장)<sup>83)</sup>, 부산 가정고녀 <낙랑공주>(1949. 1. 20~21, 부산도립극장)<sup>84)</sup>, 부산사범학교 <페스타룻치>(1950. 3. 3~5, 동교 강당)<sup>85)</sup>, 부산공립여자중학교(현, 부산여고) <낙성의 달>(1950. 3. 20)<sup>86)</sup>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음악극은 학생들에 의한 교내 음악극이지만 금수현, 윤이상, 최

78) 금수현, 앞의 책, 120쪽. 구체적으로 어떤 곡들이 소개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제목이 알려진 노래도 악보나 가사가 남아있지 않다.

79) 금수현, 앞의 책, 101쪽.

80) 『학교소식』 제9호, 경남공립여자중학교, 1946. 11. 5, 7~8쪽.

81) 금수현, 앞의 책, 114쪽.

82) 『부산일보』, 1948. 12. 22. 2면, ‘<호반의 집> 공연-男女서 가극 발표회’.

83) 금수현, 앞의 책, 121쪽.

84) 『부산일보』, 1949. 1. 18, 2면, ‘사극 <낙랑공주> 공연-가정고녀서 창립기념회’.

85) 『자유민보』, 1950. 3. 3. 2면, ‘부산사범서 종합예술제’. 금수현, 앞의 책, 123쪽.

86) 『자유민보』, 1950. 3. 22. 2면, ‘장갑상(張甲相), <낙성의 달>의 퇴폐성’.

술문, 김호민, 이주홍 등의 당대 주요 예술가들이 극 창작, 작곡, 음악 지도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학부형, 일반에 공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대와 공공기관의 행사에 다시 초청되어 상연함으로써 청중을 광범위하게 확보해 나갔다. 가령, 경남공립여자중학교의 <을불의 고생>은 당시 부산을 방문한 임정요원 초청 행사에서 상연되었고, 부산사범학교의 <화목란>은 장도영 장군의 요청으로 부산극장에서 재상연되었으며, 부산가정고녀의 <낙랑공주>는 학교창립기념행사로 부산진극장에서 상연된 작품을 청중의 인기 덕분에 부산도립극장에서 재상연한다.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부족한 시대에 민족주의적·교훈적 내용에 음악이 가미된 드라마는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 학생 음악극은 그 시대 학생 활동의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학생 활동, 교내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언론매체에서도 학생 음악극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다. <낙랑공주>와 관련한 『부산일보』의 기사에서 교내 음악극에 대한 일반의 기대와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부산가정고녀(釜山家政高女) 연예부와 음악부에서는 동교 창립기념행사로서 지난번 부산진극장에서 <낙랑공주>를 공연하여 일반에게 다대한 호평을 받았는데 금반 제2차로 오는 20일 21일의 양일간에 걸쳐 도립부산극장에서 <낙랑공주>를 공연하게 되었다는데 학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에서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향간의 인기가 비등되고 있다.<sup>87)</sup>

그러나 모든 학생 음악극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은 아니다. 가령 부산공립여자중학교의 <낙성의 달>은 혹평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87) 『부산일보』, 1949. 1. 18. 2면, ‘사극 <낙랑공주> 공연—가정고녀서 창립기념회’.

부산여중이 악극 <新羅의 달> 아닌 <落城의 달>을 학생극으로 발표 공연한 것은 특히 교육적 견지에서 보와 한심한 일이다.

저속한 악극물이 대중의 이성과 감정을 퇴폐로 유인하고 소위 純劇團이 비양심적인 흥행을 하고 있는 현하 극계의 빈곤성을 보충하고 그 부패성을 개혁하여 적으나마 건전하고 착실한 양심적인 예능의 精華를 발휘하여 情操를 승화하고 理知를 도야하는 것이 학생극이라면 그것은 언제나 정직하고 충실하다는 의미에서 양심적이고 시대성을 띤다는 의미에서 건설적이어야 할 것이다.

<낙성의 달>의 원작 李周洪의 극 의도는 背信과 利욕을 처단하고 화랑도의 節操를 찬양 강조하는 데 있었던 것 같으나 극으로서 표현된 그것은 그 의도와는 거리가 먼 健實性을 잃은 피상적인 ‘뿔’ 일종의 少女歌劇이 생기고 말았다.

연출(南相協)의 절劣(졸렬-필자)과 연기의 미숙은 장치(朴性圭)의 상(白호) 음악(尹伊桑) 등의 좋은 조화에도 불구하고 이 극을 실패로 종결시켰다. 등장인물은 자기 역할을 자기 성격을 잘 자각 못하고 있다. 산만한 무대 분위기는 충실을 버리고 피상만 추구했다. 대사는 대체적으로 발음의 불명료, 발성의 미약, 암송의 부족, 사투리 등은 讀本式으로 너무 不消化的이고 意志전달이 불충분하다.

표정동작도 너무 粗忽하고 치밀성이 결핍하고 있다. 제1막을 서곡 형식으로 무용(朴以浪)을 주로 하여 표현하였으나 극 쓰토리를 살리는 데는 별로 도움도 되지 안하였다. 제4막 크라이막쓰의 장면은 극적인 충동을 이리키 줄 아무것도 표현되지 못하였다. 제3막 允忠장군 진영에 사무용 책상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장치와 의상의 豪華에 비하면 너무 奇態다.

終幕까지 배경에 떠 있는 달은 너무 무신경하다. 조명은 무대를 화려하게만 할라고 하였고 동작자의 표정을 살리고 극 쓰토리-의 진행에 따라 시간추이를 감○(感應-필자)시키는 데는 무관했다.

여학생극으로서의 男役이 많아서 미숙한데다 無理를 강요한 결과

가 되고 말았다. 何役할 것 없이 화장을 곱깨만 할라고 한 것은 여성 심리의 상식이겠으나 그것은 역할을 무시한 것이다.

○체 웅홉은 가스롭고 背後群衆의 함성도 난잡하다. 대체로 이 극은 皮相만 화려만 알고 또 그것만 추구하는 치밀한 구상과 착실한 표현과 진지한 노력을 잊은 학생극이 되고 말았다.

修學조차 충실히 하지 못하고 浮動怠만한 現下 학생 동태를 볼 때 무리한 연극은 하지 말고 ○량(재량·필자)에 알맞는 건실한 극으로서 착실히 전진하여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3월 20일)<sup>88)</sup>

원작 이주홍, 연출 남상협, 장치 박성규, 의상 백호, 음악 윤이상, 무용 박이랑 등의 진용을 갖추었으나 연출과 각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출연자들의 미숙한 기량과 자세, 연습 부족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작품 전체를 두루 아우르는 시각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평론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낙랑공주>가 혹평을 받은 원인은 장갑상이 지적한 대로 작품 내부에도 있겠지만 각 학교마다 개최하는 음악극의 과열된 인기에 빠르게 편승하기 위한 성급한 시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해방기 부산에서 음악극 창작을 주도한 인물은 금수현이다. 그는 작곡뿐만 아니라 극, 안무, 합창지도 등의 다방면에서 활약하였다. 금수현의 음악극은 그의 재능, 경험, 기술이 축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식민지시대 동경유학 당시 동경국제극장<sup>89)</sup> 오페라부에서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오페라 레퍼토리를 넓혀나가는 한편 무대 매너를 익히기 위해 발레 기본기를 배우는 등 공연예술 기획과 연출 면에서 적지

88) 『자유민보』, 1950. 3. 22. 2면, ‘장갑상(張甲相), <낙성의 달>의 퇴폐상’.

89) 동경의 2대 흥행사인 쇼츠쿠(松竹)계 극장이며, 당시 금수현은 예명으로 호시(星)를 사용했다.

않은 자양분을 섭취하였다. 여기에 금수현 특유의 민족의식이 작용한다. 그는 1941년 5월 31일 부산극장에서 귀국 독창회를 여는데,<sup>90)</sup> 당시 연주곡목에 <삼수갑산>, <농부가>와 같은 조선 고유의 노래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동경의 동양음악학교(東洋音樂學校)<sup>91)</sup> 졸업기념으로 작곡한 아리아 <심봉사의 탄식>도 불렀다.<sup>92)</sup> 서양음악을 무조건 숭양하지 않고 우리 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의 민족주의적 음악 철학, 그리고 오페라와 드라마에 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귀국 후에는 고향 대저에서 농촌계몽극 <강팔십>을 제작·상연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1943~1944년 무렵 동래고등학교(현 동래여고)에 근무할 당시 처음으로 학생 음악극을 시도하게 된다. 여학생 정서함양과 학예회 발표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처음에는 동화 줄거리에 독창, 합창, 발레를 포함한 음악극을 제작했으며, 이듬해 일본에서 보고 감명 받았던 중국 이야기를 소재로 <목란중군>을 제작한다.<sup>93)</sup> 공연은 성공적으로 치러져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다른 학교에 부임하거나 도립극장 지배인으로 일할 때도 음악극 제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도립극장에서는 <삼손>, 부산사범학교에서는 <페스타롯치>를 제작하였다. 경남공립여자중학교에서는 고구려 시대를 소재로 한 <을불의 고생>과 장보고를 모티프로 한 <궁복의 딸>을 제작하였다. 한 학부형의 <궁복의 딸> 관람기 「음악회 제1일을 보고 돌아간 一父兄의 편지」를 소식지에 수록하여 공연의 대성황을 전하기도 했다.

### 선생님 귀하

90) 『매일신보』, 1941. 5. 24, 3면, ‘금수현씨 독창회’.

91) 1907년 설립되었으며 1969년 동경음악대학(東京音樂大學)으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92) 금수현, 앞의 책, 63쪽.

93) 금수현, 위의 책, 68쪽.

가을음악회 때문에 큰 수고들 하십니다. 어제 그 전모를 견학하우고 교육양심적인 연출과 각색, 장치, 부서 기타 모든 방면에 있어서의 부내 어느 학교라도 능히 본받을 수 없는 아니 감히 추수(追隨)할 수 조차 없는 모습을 목도하고 우리 학교라는 긍지를 단단히 느꼈던 것입니다. 더구나 등대강단(登臺降壇)하는 생도의 진퇴거동(進退舉動)이 훌륭하며 각 선생님의 책임부서 완수와 함께 협심교력(協心膠力)하는 공기(空氣)가 이 성과를 자아내었다고 보았습니다. 대중소 각 학교의 교원들을 많이 불러 심학(心學)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무용 등속(等屬)에 있어서는 좀더 세련되었으면? 하는 감을 느꼈습니다.

부산초량초등학교 부교장 김상조씨로부터<sup>94)</sup>

금수현으로부터 시작된 학생 음악극 제작은 불거리가 부족한 시대의 인기 있는 엔터테인먼트였다. 여흥을 즐기도록 하는 데서 나아가 시대의 희망, 교육적 교훈 등을 담아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직원,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각급 학교로 빠르게 확산되어 간 음악극 제작 활동은 명망 있는 문인과 연극인, 무용가, 미술가 등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이 음악극 제작에 결합하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의 질 역시 나날이 향상되어 갔다. 단순히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여 내놓는 데 치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대 청중의 수요와 반응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추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음악극은 서사, 연극, 독창, 중창, 합창,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어우러진 총체극으로 부산지역 음악사회를 특징 짓는 중요한 문화콘텐츠라 할 수 있으며 한국오페라 제작으로 나아가는

94) 이 공연으로 학무국, 관공서, 언론 매체, 후원회, 동창회, 자모회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성원금을 받아 ‘부평정 화재 이재민’ 구원금 3천원을 보내고 탁구 시설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학교소식』 제10호, 경남공립여자중학교, 1946. 12. 5, 2면.

발판이 되었다.

### 3. 한국오페라 창작활동

오페라는 “시, 드라마와 음악의 통합체, 연행을 통해 활기를 띠는 모든 것”을 지칭한다. 서양음악에서 오페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오페라(‘작품’의 이탈리아어)는 음악을 계속적 또는 거의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드라마로 무대 장치, 의상, 연기를 동반하여 무대화된다. 오페라의 텍스트는 리브레토(‘작은 책’의 이탈리아어)라 불리는 데, 대개 운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연극이다. 오페라의 정수는 시, 드라마, 음악이 통합되어 공연을 통해 모두가 생명력을 얻게 되는 데 있다.<sup>95)</sup>

음악을 ‘계속적’ 또는 ‘거의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연극으로 무대 장치, 의상, 연기를 동반하며 시, 연극, 음악이 하나가 되는 총체극이라는 측면에서 전술한 음악극은 오페라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서는 작품 발표 당시의 용어를 존중하여 음악극과 오페라를 구분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오페라 공연은 1948년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서울시공관에서 개최되었다. 작품은 베르디의 <춘희>다.<sup>96)</sup> 우리말로 된 한국오페라의 상연은 지금껏 1950년 5월에 상연한 현재명

95) “An opera(Italian for “work”) is a drama with continuous or nearly continuous music that is staged with scenery, costumes, and action. The text for an opera is called a libretto(Italian for “little book”), usually a play in rhymed or unrhymed verse. The art of opera is a union of poetry, drama, and music, all brought to life through performance.” J.Peter Burkholder · Donal J. Grout · Claude V. Palisca, *A History of Western Music*, 7th Edition, the United States:Norton, 2006, p.307.

96) 이강숙 · 김춘미 · 민경찬, 『우리음악 100년』, 현암사, 2001, 248쪽.

의 <춘향전>이 최초의 작품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금수현의 <피리와 칼>은 1948년 5월 5~6일 부산극장에서 상연되었으므로 이보다 2년이나 앞선다. 그러나 ‘기원’이나 ‘최초’를 논하는 일은 언제나 불완전하다.<sup>97)</sup> ‘오페라’라는 용어와 장르는 이미 식민지시대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다. 김안서가 쓴 1927년 7월 27일자 『동아일보』 칼럼에는 “오페라를 활동사진에서 구경”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sup>98)</sup> 1937년 7월 1일자 『동아일보』에는 이탈리아에서 유학한 성악가 이인선의 인터뷰 기사에도 오페라와 관련한 언급이 나온다.<sup>99)</sup> 박영근을 주축으로 하는 ‘경성오페라스타디오’에서는 1937년 7월 악극단 ‘오페라좌’를 창립하고,<sup>100)</sup> 같은 해 9월 22~23일 부민관에서 제1회 악극으로 <춘향전>을 상연하였다. 경성오페라스타디오의 <춘향전>은 창극이나 극영화가 아니라 오페라화 했다는 점에서 “조선오페라 창설에 획기적인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sup>101)</sup> 또한 1991년 아리아 악보가 발견된 안기영의

97) 서양음악에서도 최초의 오페라 작품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최초의 오페라는 리누치니(Ottavio Rinuccini)의 전원시(pastoral poem)에 페리(Jacopo Peri)가 곡을 붙인 <다프네(Dafne)>다. 1598년 10월 코르시(Corsi)의 궁정에서 상연되었다. 음악은 일부만 남아 있지만 등장인물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음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로 불리는 무대화된 드라마라는 점에서 그리스 극의 전범에 따른 최초의 오페라로 기록되어 있다. 최초의 완성본 오페라는 1600년 페리가 리누치니의 전원극(pastoral drama)에 곡을 붙인 <에우리디체(L' Euridice)>다. 이 곡은 같은 해 10월 메디치가의 마리아(Maria)와 프랑스의 앙리 4세(King Henry IV)의 결혼식에서 상연되는데, 이때 연주된 버전에는 카치니(Giulio Caccini)가 쓴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페리와 카치니의 두 판본은 각각 출판되었고 둘 다 최초의 완성본 오페라가 되었다. J.Peter Burkholder · Donal J. Grout · Claude V. Palisca, Ibid, 2006, pp.312~313. 그러나 “어떤 아이디어를 창안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의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준 사람”이라는 점에서 최초의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로는 페리나 카치니가 아니라 몬테 베르디(Claudio Monteverdi)로 꼽히며, 그의 첫 작품은 <오르페오(L' Orfeo)>다. J.Peter Burkholder · Donal J. Grout · Claude V. Palisca, ibid, p.316.

98) 『동아일보』, 1926. 7. 27. 3면, ‘독창과 모방’.

99) 『동아일보』, 1937. 7. 1. 7면, ‘보고 온 이야기—이태리는 음악의 나라 가극이 개중에 최성(最盛)’.

100) 『동아일보』, 1937. 7. 31. 6면, ‘오페라 스타디오 직속 ‘오페라좌’ 창립’.

101) 『경성음악스타디오 주최 악극 <춘향전> 상연’, 『동아일보』, 1937. 9. 16, 7면. <춘향

1941년작 <견우직녀><sup>102)</sup>, 1940년 5월 22일부터 31일까지 시안 난위 엔먼(南院門) 실험극장에서 초연한 한형석의 3막 항일가극(오페라) <아리랑><sup>103)</sup> 역시 한국오페라의 기원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부산에서는 서구 오페라가 상연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 가운데 부산에서 음악극과 한국오페라 창작·제작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는 점은 기억할 만하다. 오페라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문학(시), 연극, 음악의 결합과 더불어 무대장치, 의상, 조명 등의 무대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시기 활발한 한국오페라 제작 활동은 부산지역의 음악적 역량뿐만 아니라 문화계 전반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 할 수 있다. 최초의 개항도시로 일찍부터 극장이 설립되고 운영되는 등 다른 도시보다 우수한 문화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도 일조했을 것으로 보인다.<sup>104)</sup>

<피리와 칼>은 1946년 11월 경남공립여자중학교에서 공연한 <궁복의 딸>을 발전시킨 작품이다. 장보고와 그의 딸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3막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1991년 금수현은 <그랜드 오페라 장보고>를 작곡한다. 즉 장보고를 소재로 한 <궁복의 딸>(1946), <피리와 칼>(1948), <그랜드 오페라 장보고>(1991)는 한 콘텐츠의 발전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작품이다. 하나의 소재가 우수한 공연 콘텐츠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축적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는 씨앗을 하찮게 여기거나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려는 이즈음의 성급한 풍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은 <피리와 칼> 공연 광고 내용이다.

전>은 기존에도 창극이나 극영화 형태로 즐겨 사용한 콘텐츠로 보인다.

102) 『월북한 안기영 작곡 한국 최초의 오페라 <견우와 직녀> 악보 첫 공개』, 『한겨레』, 1991. 12. 11, 9면.

103) 장경준 외, 『먼구름 한형석의 생애와 독립운동』, 부산근대역사관, 2006, 37쪽.

104) 이에 대해서는 고(稿)를 달리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새들예술원 제1회 발표공연 오페라 <피리와 칼>(3막 6장)

기대하는 오페라 遂登場! 총 출연인원 50여명

노래와 춤과 코-라스와 바레-로서 오페라(가극)화 한 신라 전쟁과 평화! 金守賢 작·작곡, 韓東人 안무, 鄭鎭業 연출, 韓相基 편곡, 吳석祚 장치, 申石出 조명/ 특별출연 서울바레-단/ 반주 신조선관현악단/ 5일부터 2일간 / 晝1시부터 공연 연속/ 학생단체 입장 환영/ 시민극장<sup>105)</sup>

대본과 작곡 금수현, 안무 한동인, 연출 정진업, 편곡 한상기, 장치 오석조, 조명 신석출의 진용을 갖추고 있으며, 반주는 신조선관현악단이 맡고 서울발레단이 특별 출연했다. 한동인은 서울에서 활동하던 무용가로 이 무렵 여성 무용가 김령(金鈴)과 함께 금수현을 찾아옴으로써 이 공연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sup>106)</sup> 금수현은 이들이 훗날 일본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2년 후 1950년 현제명의 <춘향전>에서 한동인이 안무를 맡았으며 서울발레단이 출연하고 있다.<sup>107)</sup> 부산에서의 경험이 일정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신조선악단’은 <피리와 칼> 연주를 위해 임시로 창단한 오페라 반주단체로 보인다.<sup>108)</sup> 피아노 한상기, 바이올린 김광수, 콘트라베이스 한희성 등을 위시한 10명 가량의 소편성 악단<sup>109)</sup>이며 ‘관현악단’으로 지칭한 것으로

105) 『남선신문』, 1948. 5. 6. 2면, ‘광고’

106) 금수현은 이들이 연애 중이며 밀항선을 타고 일본에서 활동하려는 것으로 보았으며 “그들의 발레를 서울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반가이 맞았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의 폭넓은 인적 교의를 엿볼 수 있다. 금수현, 앞의 책, 113쪽.

107) 『동아일보』, 1950. 5. 21. 2면, ‘광고’

108) <피리와 칼> 이전에는 공연 기록이 없으며, 1949년 4월 16일에 개최한 <시와 음악의 회(會)>에 ‘신조선악단’이 연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둘의 연관성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방부원 소장 팜플렛’, 제갈삼, 앞의 책, 71쪽.

109) 금수현, 앞의 책, 114쪽.

보아 관악기 연주자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출연진은 새들 예술원이다. 새들예술원은 금수현이 부산도립극장 지배인으로 일하면서 극장의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창단한 공연단체다. ‘산 집’이라 불린 금수현의 자택이 연습실 겸 숙소였다. 신문 공고로 단원을 모집하는데 신현덕, 김석준을 비롯한 10여 명이 모였으며 금수현과 아내 전해금이 발성법과 코르위붕겐(Chorübungen)<sup>110)</sup>을 지도했다. 6개월 가량 훈련 끝에 음정을 제대로 잡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서울에서 찾아온 무용가 한동인과 김령, 실력 있는 테너 박진태와 박향이 가세했다. 의상은 전해금이 자루를 만드는 천을 염색하고 금빛 깡통 조각을 달아 제작했다. 출연진은 주역 궁복에 박향, 딸 미란에 이선숙, 왕자 경응에 박진태, 노파에 김정렬이다.<sup>111)</sup> 부산 공연의 성공으로 마산에서 성황리에 2회 더 공연하였다. 특히 제3막 전쟁에 지친 병사들의 합창에서 김석준의 보이 소프라노 솔로에 여학생들이 환호성을 올리기도 했다. 대구 명보극장에서는 1948년 5월 10일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5·10 총선 관련 폭동이 발생해 무대 리허설 도중 무산되기도 했다.<sup>112)</sup>

<피리와 칼>의 시놉시스는 찾아볼 수 없지만, 새로 발굴한 <궁복의 딸> 시놉시스와 등장인물을 참고할 수 있다.

### <궁복의 딸> 3막 6장

#### 사람

궁복(弓福): 해청(海淸) 장군. 황소같이 힘은 세나 판단력이 부족함

미란: 궁복의 딸. 여성답지 못하므로 비극을 낳음

110) 독일의 피아니스트, 지휘자, 작곡가인 뵐너(Franz Wüllner, 1832~1902)가 지은 음정 연습을 위한 성악 교본이다.

111) 이선숙과 김정렬은 경남여고 졸업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김영애와 박정숙은 재학 중이어서 출연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금수현, 앞의 책, 113~114쪽.

112) 금수현, 위의 책, 113~114쪽.

염장(閻長): 문신. 참된 용기와 참된 충성을 아는 시민  
문성왕(文聖王): 신라 46대 왕. 어릴 때는 고생도 많이 한 덕 높은 왕  
우증(祐徵): 신무왕(神武王), 신라 45대왕. 문성왕의 부. 궁복의 힘을  
빌립.

늙은이: 옛 궁녀. 아는 것이 많고 판단이 바름  
막돌, 쇠돌: 문성왕의 시종  
정연(鄭年): 궁복의 동생, 우증을 도와서 김명을 침  
그 밖: 신들, 갑을병정무, 처녀들, 병졸들, 동리 사람들

**제1막 바다가 보이는 숲, 달밤**

1장: 미란이와 처녀들은 늙은이에게 신라의 나라 형편과 거기 앓은  
거지가 장차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할 때 궁복이 온다.  
2장: 우증은 궁복의 힘을 빌리고자 사돈 될 일을 약속하고 정연이를  
앞세우고 월성으로 쳐들어간다.

**제2막 궁전**

3장: 막돌은 경과를 이야기한다. 즉 모든 일이 성공하여 우증님이 신  
무왕이 된 뒤 1년만에 죽고 그 아들이 문성왕이 되었다는 일을.  
쇠돌은 궁복이 그 딸 미란을 왕비로 안 삼는다는 이유로 궁성으  
로 쳐들어온다는 말을 한다.  
4장: 왕은 회의를 열었으나 신들은 겁내어 대항할 용기를 잃었을 때  
염장이 자기가 가겠다고 하며 홀로 떠나간다.

**제3막 궁복의 진**

5장: 궁복의 진에 온 염장은 술책으로 궁복을 죽이니 미란은 자살한  
다. 그리고 염장은 달려드는 병졸들을 설득시킨다.  
6장: 왕이 와서 염장을 표창하려 하니 죽인 동무 궁복을 위로하기 위  
하여 벼슬 대신 옥피리와 꿩이를 얻어 청해 산골로 떠나가니 눈  
물짓는 사람조차 있다. 끝<sup>113)</sup>

113) 『학교소식』 제9호, 경남공립여자중학교, 1945. 11. 5, 7~8쪽.

<그랜드 오페라 장보고>는 1985년 8월 이전부터 작곡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sup>114)</sup> <그랜드 오페라 장보고>의 등장인물과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그랜드 오페라 장보고> 3막

#### 등장인물

장보고: 바리톤, 청해진 대사, 장군  
나나: 소프라노, 장보고의 딸  
경웅: 테너, 우징의 아들, 후에 문성왕  
우징: 바리톤, 경웅의 아버지, 후에 신무왕  
정년: 바리톤, 보고의 의동생, 부장군  
염장: 바리톤, 우징파의 목객, 보고의 자객  
까투리: 테너, 군사, 나나를 짝사랑  
창진: 테너, 병장, 구슬의 남편  
구슬: 소프라노, 나나의 친구, 창진의 부인  
김양: 바리톤, 우징파 공신, 상대등이 되어 위훈이라 함  
소명: 메조 소프라노, 김양의 딸, 문성왕비  
낙금, 이순행 · 장변, 장건영: 우징파 중신들이라 후일 상대등  
원인, 원재: (1인 2역) 일본 승려, 일본 통절사  
대훈: 당나라 교역사  
병사 갑: 청해진 군사  
군사들(겸 마을사람): 남성합창단  
마을 여인들: 여성합창단

#### 줄거리

##### 제1막 청해진 바닷가

바닷가에서 장보고의 딸 나나와 우징의 아들 경웅이 사랑을 하고

114) 『경향신문』, 1985. 8. 15. 9면, ‘오페라 <장보고> 작곡 몰두’.

있다. 장보고, 정년, 군사들이 해적소탕에서 개선하고 마을 여인들이 환영한다.

여기서 창진과 구슬의 혼례식이 장보고의 주례로 거행되고 잔치를 위해 사람들이 육지로 간다.

기다렸던 우징과 김양, 중신들이 장보고에게 월성(경주) 출병을 호소 승낙을 받으며 우징은 사돈이 될 것을 약속한다.

이튿날 새벽 김양과 정년이 이끄는 5천 군사가 출병 마을 사람들은 다시 환송을 한다. 출병에서 빠진 청진, 구슬은 기뻐한다. 까투리는 회의적이다.

### 제2막 신라궁전

궁에 남아 경비대장이 된 까투리 승전과 우징(신무왕)의 죽음, 경응(문성왕)의 치하임을 설명한다.

왕후 소명은 아버지 김양(상대등)에게 왕이 자기를 멀리하며 나나 생각에 잠겨있다고 호소한다.

중진들의 회의가 열려 왕이 나나를 차비(次妃)로라도 삼자고 다시 제안하자 중신들이 반대하고 되려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고 건의하며, 모두 걱정한다.

염장이 청해진에 가서 실정을 알아보고 조처하겠다고 하니 모두 찬성한다.

이 상황을 엿들은 까투리도 도망질하여 청해로 간다.

### 제3막 청해진 누각 앞

장보고는 찾아온 염장을 의심하면서도 맞아 위로를 받는 듯, 당나라와 일본 사신들과 함께 환영잔치를 벌인다.

염장은 장보고가 취중에 왕실에 대해 분개하고 출병할 뜻이 있음을 알고 때를 기다린다.

일본 통절사가 나나의 춤을 보자고 간청한다. 이때 까투리가 도착하여 나나에게 염장의 임무를 귓속말로 고한다.

나나는 춤을 추다가 아버지의 칼을 빼어 칼춤으로 변하는데 순간적으로 그 칼로 염장을 찌르지만 빗나간다.

그러나 염장은 그 칼을 빼아 역시 순간적으로 장보고를 찌른다.

칼에 맞은 장보고는 ‘별의 노래’를 부르고는 쓰러지자 장내는 수라장이 된다.

잠복해 있던 관군이 술 취한 청해군사를 제지하고 염장은 비참하게 평화를 호소한다. 그 사이에 바위에 오른 나나가 투신자살을 하고, 시체를 안은 까투리가 나타나며 이제 나나의 사랑을 얻었다고 한다.

군사들과 마을여인들이 나오며 ‘슬픈 노래’에 이어 장보고 장군에 대한 ‘찬양노래’가 합창된다. 이 때 장보고와 나나가 승천하는 환상이 보인다.<sup>115)</sup>

<그랜드 오페라 장보고>는 1992년 김봉임 단장의 서울오페라단에 의해 서울에서 초연, 이후 지방 도시 몇 곳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sup>116)</sup> 이후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실제 공연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궁복의 딸> 시놉시스와 <그랜드 오페라 장보고> 줄거리로 미루어볼 때, <피리와 칼> 역시 극의 흐름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추측되며, 주요 아리아와 전반적인 음악적 분위기도 전혀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금수현은 <그랜드 오페라 장보고>의 제작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9세기 초, 통일신라시대. 우리 영해를 해치던 당나라와 일본의 해적들을 무찌른 뒤, 4해를 누비며 동양 3국에 무역을 열어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청해대사 장보고 장군이 나라 사랑과 딸 사랑의 인간적 갈등 속에 빠져든다. 끝내는 배신에 의해 살해되어 그 공로마저 말살된 듯한 장보고의 역사적 비극을 파헤치고 그의 공을 추앙하려는 것

115) 금수현, 『그랜드 오페라 장보고』, 월간음악출판사, 1991, 4~5쪽.

116) 『동아일보』, 1991. 6. 12, 12면, ‘장보고 일생 다룬 오페라 완성’.

이다. 이 오페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 중에 충무공 못지않은 해상활동을 한 또 한 사람의 국제적 위인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려는 것이다. 그를 ‘바다의 왕’이라 함이 타당하겠다. 이 줄거리나 등장인물은 거의 역사적 기록에 의한 것이며, 주인공 장보고와 그의 딸 나나의 죽음은 세계적 그랜드 오페라의 정석대로라 소재로서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sup>117)</sup>

금수현은 일찍이 장보고라는 실존 인물의 위대성과 그 삶을 둘러싼 갈등이 오페라의 극적 소재로 충분하다는 판단을 했다. 오페라의 생리와 제작에 관한 지식과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오페라를 통해 장보고의 업적과 삶을 재조명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를 재인식하게 하고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해방기의 시대 상황을 감안하면 오페라의 소재를 선택하는 금수현의 안목을 더 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음악을 사회와 동떨어져 순수하게 존재하는 그 무엇으로 생각하지 않고 음악을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점은 금수현 음악 활동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호반의 집>은 전 4막으로 구성된 가극이다. 지역 문인 향파 이주홍이 1948년 11월 9일 타고하여 동래공립중학교(현 동래고)와 남조선여중(현 남성여고)에서 상연하였다. 이주홍문학재단에서 펴낸 『이주홍 극문학 전집』 1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가극 전4막.

1948년 동래중학(현 동래고교) 상연. 최술문 작곡, 남상협 연출.

1949년 남선고녀(현 남성여고) 상연. 최인찬 작곡, 연출.

여인초(旅人草)라는 필명을 사용하기도 함.

여기에 실린 작품은 최술문 작곡의 공연용 대본으로 제작된 등사본임.

117) 금수현, 앞의 책, 1991, 3쪽.

부기에 ‘1948년 11월 9일 밤 탈(脫)’이라고 표기.<sup>118)</sup>

그러나 1948년과 1949년의 해당 공연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1948년 12월 22일 『부산일보』에는 1948년 12월 27~29일까지 3일에 걸쳐 상연될 <호반의 집> 공연 예고 기사를 실고 있는데 각별히 ‘오페라’로 표기하고 있다.

부내 남조선여자중학교에서는 금반 동교 연극 음악 무용부 등을 총출동하여 도라오는 27, 8, 9일의 3일간 주야 걸쳐 동교 강당에서 이 주홍씨 작 “오페라” <湖畔의 집>(전 4막 4장)을 일반에 공연케 되었다고 하는데 학원 내에서 “오페라”를 공연하게 되었다는 것은 해방전 후 통하여 아직 이 나라에서는 일찍히 보지 못한 일이며 특히 其原作 이 현 사회상에 크나큰 자극을 줄 수 있는 양심적인 작품이라는 것과 흔히 보는 구라파식 모방적 “오페라”가 아닌 우리나라의 “오페라” 운중에 새로운 면을 개척하는 획기적인 공연이라는 점에 있어 일반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 작곡 崔述文, 연출 金洙敦, 안무 朴南虎, 장치 金영敏 제씨가 담당하고 있다 한다.<sup>119)</sup>

기미만세의거 3~4년 뒤 광명여숙이라는 어느 시골 학교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다. 등장인물은 광명여숙 설립자 윤교장, 윤교장의 후처 안부인, 윤교장의 아들이자 음악가 윤희석, 윤교장의 딸이자 광명여숙 교사 윤혜원, 안부인이 데리고 온 딸 은희, 광명여숙 교사 유현태, 역사 선생 송자경, 한문선생 조영직, 직조회사 사장 오형수, 오사장의 장인이자 서울 부호 심의관, 직조공장 동업자 와타나베, 직조공장 사원이자 안부인의 동생 안승환, 직조공장 사원 김민자, 학교소사 서서방, 등산

118) 이주홍 문화재단 지음·정봉석 엮음, 『호반의 집』, 『이주홍 극문학 전집』 제1권, 세종출판사, 2006, 233쪽.

119) 『부산일보』, 1948. 12. 22. 2면, ‘<호반의 집> 공연 男女서 가극 발표회’.

대 일행, 건우회 회원 박소사, 공장에서 심부름하는 여급사광명여숙 학생 인자, 경애, 영숙, 애라, 인순, 순희, 귀남, 옥배, 영혜 들이다. 식민지 시대 여학교 교사(校舍)를 공장으로 만드려는 계획을 무산시키고 학교를 지켜낸다는 줄거리로 제4막 심의관의 대사를 통해 핵심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

**沈議官** 校長선생은 잠잠고 계시우. (다시 吳社長을 向해서) 남들은 生命을 던져 祖國光復을 위해 싸워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협력해 주기는 커녕 가진 악랄한 짓으로서 中傷과 妨害를 일삼으니 어찌 이놈아 네가 사람이란 말이나! 사람 가죽을 쓴 개지 뭐란 말이나! 왜놈들의 발굽 밑에서 백성은 塗炭 속에서 울고 피끓는 憂國志士들은 怨恨의 두 주먹을 떨고 있는 이때에 文書를 위조해서 學校를 내쫓고 거기다가 工場을 차려? 이놈아 工場을 채리랑이면 工場이나 채릴 일이지. 왜 貴한 집 子女를 甘言利說로 꺾어 가지군 이 모양으로 신세를 망치느냐 말야! 요따위 놈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요 모양으로 百年 됐고, 요따위 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百年朝鮮이 어둠단 말야.<sup>120)</sup>

깨달음과 용기로써 일제의 탄압과 모리배의 계락을 극복하고 민족의 미래와 같은 학교를 지켜낸다는 교훈적인 이야기는 당대 관객들의 공감과 감동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이에 더하여 청춘의 죽음과 여학교 교실의 정감과 익살, 예술 예찬 등 낭만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감상의 재미를 더한다. 특히 작품의 연출을 맡은 김수돈은 광복 직후 마산문화동맹을 조직하여 문화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경남공립여자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하면서 조선청년문학가협회 경남지부의 실무를 담당했다. 이 무렵

120) 이주홍 작·최술문 곡, <湖畔의 집>, 1948, 56~57쪽. 이주홍문화재단 소장 대본(등사본). 뒷표지에 ‘남조선중’ 마크가 찍혀 있어 1948년 12월에 상연된 오페라 대본으로 보인다.

그는 해방 1주년을 맞아 청문협 경남지부의 문학적 역량을 안팎으로 드높이기 위한 ‘해방 1주년 기념시집’ 『날개』 발간과 ‘해방기념공연: 시와 음악과 가요의 성전’ 개최를 주도하였다.<sup>121)</sup> 좌파 문단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체의 공식적·예속적 경향을 배격하고 진정한 문학정신을 옹호하며 민족문학의 세계사적 사명을 완수”하려는 조선청년문학가협회의 노선을 오롯이 실천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오페라’를 표방한 만큼 대본부터 음악을 상당한 매개로 집필하고 있다.<sup>122)</sup> 막이 오르기 전부터 교향곡과 합창곡의 선율이 들리도록 했으며 등장인물의 주요 메시지는 대사가 아닌 시(詩) 형식의 가사로 처리하고 있다. 또 윤교장의 아들 희석의 테마로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선율이 라이트모티프(leitmotiv)<sup>123)</sup>처럼 사용된다. 희석의 죽음을 두 동강이 난 클라리넷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점도 재미있다. 등장인물의 정서를 표현하거나 스토리 전개상 주요 지점에서는 노래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듯 대사를 시(詩)로 처리하고 ‘(노래)’라고 표시하였다. 합창과 독창은 물론 이중창과 중창, 레치타티보(recitativo)<sup>124)</sup>를 연상케 하는 노래 대사 부분도 여러 차례 나타난다.

121) 기념공연은 전체 3부로 마련되었다. 고두동, 유치환, 김수돈, 조항, 탁소성이 진행을 맡았다. 1부는 부산합창단의 합창과 소프라노 독창, 무용, 제금(提琴) 독주, 대독(代讀) 시낭독, 기타 독주로 구성되었다. 2부 역시 합창, 동요, 남성 4중창, 독창, 무용, 자작시 낭독으로, 3부는 합창, 테너독창, 피아노 독주, 소프라노 독창, 무용극, 조선극장 전속 악극단으로 보이는 미려악단(美麗樂團)의 특별공연으로 꾸며졌다. 이순옥, 『광복기 경남·부산 시인들의 문단 재편 욕망과 해방 1주년 기념시집 『날개』』, 『비평문학』 43, 2012, 197~202쪽.

122) 1950년 1월에 탈고한 <낙성의 달>에는 죽죽의 대사와 합창 1곳 외 노래로 된 대사가 없다. 이주홍문학재단 지음·정봉석 엮음, 『낙성의 달』, 『이주홍 극문학 전집』 제1권, 세종출판사, 2006, 368쪽.

123) 오페라나 교향시 등에서 특정 인물이나 상황과 결부하여 반복해 사용되는 짧은 주제나 동기를 말한다.

124) 오페라에서 아리아(aria)가 주인공의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이라면 레치타티보는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나 극의 전개를 설명하는 데 주로 쓰인다. 대사를 말하듯이 노래하는 형식이다.

&lt;표 2&gt; 오페라 『호반의 집』의 노래 부분

막	쪽 <sup>125)</sup>	구분	노래 부르는 이	비고
1	236~237	합창		오프닝, 멀리서 들리는 합창 소리
	237~238	노래 대사	서서방, 여학생 일동	
	238	노래 대사	경애·영순, 애리, 영숙, 여학생 일동	
	244	독창	경애	
	245	합창		멀리서 들려오는 합창 소리
	246	독창	귀남, 옥배	
	249	독창, 중창	영혜, 귀남, 여학생 일동	
	252	독창	교장	
	253, 255	독창	오사장	
2	257	합창		등산대 일동
	258	노래 대사	등산대 A, B, C, D	
	258, 259	독창	인자	
	259	독창	인순	
	259	노래 대사	순희, 교장, 경애	
	260	독창	교장	
	260	노래 대사	안부인	
	261, 262	노래 대사	서서방, 교장, 안부인	
	262	독창	안부인	
	263	노래 대사	안부인, 승환	
	264	독창	은희	
	265, 267	노래 대사	안부인, 혜원	
	267	독창	혜원	
	269, 272	독창	희석	

	271, 272, 273	이중창	희석, 민자	주고받는 노래
3	283, 285, 290	독창	오사장	
	288	이중창	민자, 혜원	주고받는 노래
4	291	노래 대사	안부인, 승환	
	296, 297	독창	오사장	
	298	중창	인자, 경애·인자	
	298	독창	혜원	
	304	합창		엔딩

그러나 전반적으로 음악적 완성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1948년 12월 28일자 『부산일보』에는 <호반의 집>에 관한 단평이 사진과 함께 실렸다.

‘오페라’ <호반의 집>(전 4막 4장)은 지난 27일 낮부터 주야에 걸쳐 매회 시민 천여 명의 참관 아래 동교 강당에서 성대히 공연되고 있는데 동 공연은 우리 문단의 중견작가인 이주홍씨의 역작을 작곡과 연주의 실패와 조명 등의 미비로써 국부적인 欠陥이 있었으나 연출가 김수돈씨의 작품에 대한 충실한 표현과 무용가 박남호씨의 情熱적인 무용 안무와 장치의 이채로운 수법 등으로 상당한 효과를 내어 공연되었는데 어린 학생 연기진과 기타 여러 가지 곤란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가극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루어진 동 공연은 전체적인 통일성을 잃은(잃은-펼자) 채(이는 작곡 연주담당자의 책임이다) 그래도 날카로운 현사회에서 아름다운 낭만과 인간사회의 암흑을 ○○주는 꽃다운 시를 보내준 원작자의 영광 속에서 고히 기록을 맺을 공연이었을 따름이다. (사진은 동가극의 一場面) (윤(潤))<sup>126)</sup>

125) 이주홍 문화재단 지음·정봉석 엮음, 앞의 책.

126) 『부산일보』, 1948. 12. 28, 2면, ‘가극 단평 <호반의 집>’.



글쓴이는 공연의 지엽적인 결함이 “작곡과 연주의 실패와 조명 등의 미비”에 있다고 보며, 무엇보다도 공연의 전체적인 통일성 상실을 ‘작곡 연주 담당자’에 그 책임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주홍이 대본을 탈고한 일자가 1948년 11월 19일 밤이라면, 실제 공연까지는 불과 한 달 남짓한 시일밖에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작곡과 음악 연습에는 큰 무리가 따랐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전술한 공연 예고 기사와 단평에서 추론할 수 있는 <호반의 집>의 가치는 국내 최초의 교내 오페라, 서구 오페라의 모방이 아닌 교훈적인 내용의 창작 오페라, 가극문화의 발전들이다. 이러한 가치를 성급하게 추구하는 과정에서 음악이 무리하게 취급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페라 대본과 작곡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이를 단순히 ‘작곡연주담당’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또 다른 오페라로 2막 5경으로 구성된 최술문 작곡의 <춘향전>이 있다. 부산음악가협회가 주최하고 부산문화기자회가 후원했다. 기획 정환무(鄭煥武), 각색 김수돈(金洙敦), 작곡 최술문(崔述文), 연출 허일영(許一影), 이몽룡에 김호민(金皓敏), 춘향에 박영희(朴英姬), 변사또에 정훈(鄭勳) 등 제작과 출연진 전체가 30여 명의 부산 출신 예술가로 구성되었으며, 7월초 공연을 예정으로 맹연습 중이었다.<sup>127)</sup>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로 공연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로 남겨지게 되었다.

127) 『자유민보』, 1950. 6. 15, 2면, ‘가극 <춘향전> 音協서 공연’. 기사에서는 이 작품을 “최초의 오페라”라고 밝히고 있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최초’의 오페라는 아니다.

## V. 마무리

이 논문은 해방기 부산지역 음악단체의 조직과 활동, 음악매체의 발간, 노래운동과 음악극·한국오페라 창작활동을 실증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해방기 부산음악사의 실체를 새롭게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지금까지 학계에 공개되지 않은 신문잡지 매체, 교우회지, 협회 기관지, 음악매체와 교재, 공연팸플릿 등의 일차문헌을 발굴하여 결락 지점을 메우고 선행연구 성과와 결합하여 해방기 부산지역 음악사회의 동향을 고찰할 수 있었다.

부산은 식민지시대 개항지였으며 미군정기 미군 주둔지였던 까닭에 외래문화의 유입과 향유가 활발하게 전개된 지역이다. 따라서 이른 시기부터 음악사회 형성과 발전에 필요한 문화적 기반과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해방기 부산 음악사회는 폭넓게 변화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방기의 특징적인 현상인 좌우대립 양상은 부산지역 음악사회에서 뚜렷이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부산 음악인들은 다양한 단체를 결성하여 순수한 음악 활동을 추구하거나 교육, 봉사 등 사회 참여활동에 더 적극적이었다. 윤인구, 금수현, 김하득을 중심으로 1946년 결성된 경남음악협회는 회원수 260명과 통영지부를 두었을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는데, 『음악주보』와 교재 발행, 음악회와 학생음악콩쿠르 개최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1946년 2월부터 발간한 『음악주보』는 우리나라 음악전문 매체의 역사에서도 선구적인 성과라 하겠다. 전문 연주자를 중심으로 1949년 결성한 부산음악가협회는 미국문화원과 상호 협력 속에 순수 음악 활동을 추구하였다. 노래자회는 새롭고 좋은 노래를 다 함께 부르자는 취지의 모임으로, 음악뿐만 아니라 문화계 전반과 대중을 아우름으로써 전문 음악인과 아마추어 음악인의 경계를 허물고 음악 창작과 향유 기반을 폭넓게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해방기 부산지역 음악사회에서 특기할 만한 현상은 음악극·한국오페라의 제작이었다. 민족주의적·교훈적 소재를 중심으로 여러 학교에서 펼쳐진 음악극은 단순한 교내 행사가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민을 아우르는 주요 문화 행사였다. 음악극 발달의 성과는 <피리와 칼>, <호반의 집> 등 한국오페라 제작으로 이어졌다. 특히 <피리와 칼>은 금수현이 1946년 11월에 경남공립여자중학교에서 제작한 <궁복의 딸>을 개작한 작품으로, 새들예술원과 신조선관현악단, 서울발레단 등이 출연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수현은 1991년 <그랜드 오페라 장보고>를 작곡한다. 음악극과 오페라는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문학 등이 결합한 종합예술 형태이므로 음악극·한국오페라 제작 활동은 부산지역의 다양한 예술 장르의 역량을 결집하고 발전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부산음악사에서 해방기는 ‘맹아기’가 아니라 이후 부산지역 음악사회의 발전 동력을 든든하게 마련했던 시기였다. 이 연구에서 발견한 해방기 부산 음악사회의 지역적 독자성과 특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실증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면 한국 음악사에서 부산 음악사의 독자적 위상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 1. 자료

경남음악교육연구회 엮음, 『중등가곡집』, 전음사, 1948.

『문예신문』 제50호~제60호, 문예신문사, 1948.

『사범일보』 제1호, 부산사범학교 학우회 출판부, 1948.

『음악주보』 제47호, 경남음악협회, 1947.

- 『서울음악신문』 제4호, 서울음악신문사, 1947.  
 『중성』 제7호, 부산: 중성사, 1948.  
 『학교소식』 제1호~제30호, 부산: 경남공립여자중학교, 1946.11~1946.12.  
 문교부, 『초등 노래책』 1~3권,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1948.  
 『민중중보』, 『자유민보』, 『부산일보』, 『산업신문』, 『부산신문』, 『부산매일신문』,  
 『부산인민보』, 『인민해방보』, 『문예신문』, 『대중신문』, 『문예신문』 등의 광복기 부  
 산·경남에서 발행된 신문매체.

## 2. 저서

-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 중권』, 경상남도, 1963.  
 금수현, 『나의 시대 70』, 월간음악출판부, 1989.  
 \_\_\_\_\_, 『그랜드 오페라 장보고』, 월간음악출판부, 1991.  
 김용호 엮음, 『1947년판 예술연감』, 예술신문사, 1947.  
 김원명, 『소리의 시선: 전환기의 지역음악문화』, 경성대출판부, 2011.  
 김창욱, 『부산음악의 지평』, 세종, 2000.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3.  
 \_\_\_\_\_, 『부산의 고급』, 현대출판사, 1965.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제4권』, 1991.  
 부산음악인인명록편찬위원회 엮음, 『부산음악인인명록』, 1981.  
 송방송, 『한국근대음악인 사전』, 보고서, 2009.  
 이강숙·이춘미·민경찬, 『우리 양악 100년』, 현암사, 2001.  
 이연직 엮음, 『경남인명록』, 동양출판사, 1947.  
 장경준 외, 『먼구름 한형석의 생애와 독립운동』, 부산근대역사관, 2006.  
 제갈삼, 『초창기 부산음악사』, 세종출판사, 2004.  
 채백, 『부산언론사연구』, 산지니, 2012.  
 한국예총 부산광역시연합회 엮음, 『부산예총 50년사: 1962~2011』, 2012.  
 한국음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엮음, 『부산음악협회 45년사』, 2010.  
 홍영철, 『부산극장사』, 도서출판 부산포, 2014.

J.Peter Burkholder · Donal J. Grout · Claude V. Palisca, *A History of Western Music*, 7th Edition, the United States: Norton, 2006.

3. 논문

- 고은진, 『부산음악사 1991~1998』,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곽근수, 『부산서양음악 30년사: 사회사적 입장에서』, 『음악과 민족』 창간호, 1991.
- 권혜근, 『미군정기의 음악교재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57, 2016.
- \_\_\_\_\_, 『해방공간의 음악교과서』, 『근대서지』 7, 2013.
- \_\_\_\_\_, 『해방공간의 음악교육 연구: ‘초등 노래책’과 ‘남녀 중등음악 교본 1, 2’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53, 2014.
- 김윤선 외, 『작고 부산음악인 연구 1』, 『음악과 민족』 27, 2004.
- 김은영, 『해방공간 교향악 운동』, 『민족음악의 이해』 4, 1995.
- 김일립 · 오창은 · 옥은실, 『해방기 한국 문화운동 연구: 문화예술 조직, 신문 · 잡지 매체, 문화적 사건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2015년 여름호(통권82호), 2015.
- 김창욱, 『광복~한국전쟁기의 부산음악계 - 부산지역 일간지를 중심으로』, 『향도 부산』 16, 2000.
- \_\_\_\_\_, 『부산음악연구의 현황과 과제』, 『음악과 민족』 34, 2007.
- 류덕희 · 최승현 · 이석원, 『식민지시대 광복 이후의 한국 음악의 동향』, 『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 7, 광복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 한국학술진흥재단, 1995.
- 류혜윤, 『부산음악사(194~1965)』, 『음악과 민족』 16, 1998.
- 유 신, 『해방 후 이십년의 부산음악』, 『개항구십년』, 태화출판사, 1966.
- 이순옥, 『광복기 경남 · 부산 시인들의 문단 재편 욕망과 해방 1주년 기념시집 『날개』』, 『비평문학』 43, 2012.
- 이순옥 외, 『피란수도 부산의 문학풍경』, (재)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8.
- 정영진, 『일제강점기 부산의 음악』, 『향도부산』 15, 1998.
- \_\_\_\_\_, 『일제 강점기 부산음악사 시론』, 『음악학』 8, 2001.
- 조선우, 『부산음악문화의 현주소』, 『음악과 민족』 창간호, 1991.
- \_\_\_\_\_, 『부산현대음악사』, 『향도부산』 14, 1997.
- 조선우 · 이기정 · 김원명, 『부산음악사 서술을 위한 시론』, 『음악과 민족』 19, 2000.

투고일: 2019. 11. 11. 심사완료일: 2019. 12. 06. 게재 확정일: 2019. 12. 17.

| Abstract |

Music Associations and Musical Drama Production in  
Busan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Nam, Young-Hee · Lee, Soon-Wook

This article aims to discover the value and meaning of liberation period in Busan music history centering on Western music. To this end, diverse empirical materials including newspapers, magazines, music textbooks, association journals, government publications and pamphlets etc. were examined in three areas;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music associations, publication of media, sing-a-song together movement & music drama · opera production. As a result, the liberation period as “a foundation for building growth engines of music field based on the cultural assets accumulated since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in Busan was newly identified.

Left-right conflict, which is a characteristic of the liberation period, is hard to find in Busan, but rather musicians in Busan organized various associations to pursue exclusivity of classical music, or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such as education and donation by concerts. “Gyeongnam Music Association”, which has 260 members and Tongyeong branch, carried out various projects such as publication of journal, organizing music competition for students and concerts. In particular, “Eumak Jubo, weekly music magazine”, published since February 1946, is a pioneering achievement in the history of publishing music journals in Korea. “The Busan Musicians' Association”, consists of professional musicians, pursued pure classical music only. “Noraehajahoe, sing together society” was a

group that aimed to sing new and good songs together. Amateurs as well as professional musicians and artists from other fields were all involved, it contributed to expansion of the range of music creation and enjoyment.

Other phenomena that characterize Busan music in the Liberation Period are the production of musical dramas and Korean operas. Musical dramas featuring nationalism and educational lessons were not just school events but popular cultural events encompassing parents and local residents. The development of musical drama led to the production of Korean operas such as *Flute and Sword* and *Lakeside House*. Musical dramas and operas are a comprehensive performing arts that combines music, art, dance, theater, and literature, and it has led to the convergence and development of artistic capabilities of various art genres in Busan. Therefore, the liberation period in Busan music history is not a “sprouting time” but a period to build up power that will develop music field in the future.

**Key words:** Liberation period, Busan, Media, Kyeongnam Music Association, Weekly music magazine *Eumak Jubo*, Musical drama